

나영석PD 이번엔 시골로…

metro®
메트로 2014년 10월 2일 목요일 제3067호 www.metroseoul.co.kr



AG 5회연속 2위 굳힌다

설렘과 기대… 영화의 향연

19회 맞은 부산국제영화제
79개국 312편 풍성한 잔치
국내외 스타 해운대 한자리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10월 영화 팬들의 몸과 마음은 부산을 향한다. 아시아 최고의 영화 축제인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2일 부산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화려한 막을 올리기 때문이다.

올해 영화제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 동안 부산 센텀시티와 해운대, 남포동 일대 7개 극장 33개관에서 열린다. 79개국서 제작된 312편이 상영되며 그중 132편이 월드 프리미어(전 세계 최초 상영)와 인터내셔널 프리미어(자국을 제외한 해외 최초 상영)로 소개된다.

◆ 거장 신작·이색 국가 작품 등 '풍성'

개막작으로는 '군중낙원'이 선정됐다. 대만의 도제 니우 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 1960~1980년대 대만에서 군 생활을 한 아버지 세대의 추억을 반추하며 만든 작품이다. 폐막작으로는 홍콩 리포청 감독의 '갱스터의 월급날'이 상영된다. 갱스터가 주인공이지만 액션이 아닌 코미디와 멜로가 결합된 새로운 스타일의 혼성장르영화다.

거장들의 신작과 화제작을 소개하는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에서는 총 4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중국 장이모 감독의 '5일의 마중', 홍콩 허안화 감독의 '황금시대', 이란 출신 모흐센 마흐말바프 감독이 조지아에서 만든 '대통령', 그리고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영화 '화장'이 선정됐다.

가와세 나오미·미이케 다카시·진가신·조니 토·차이밍 량 등 일본·홍콩·대만의 대표 감독과 켄 로치·아벨 페라라·다르덴 형제·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 등 영미와 유럽 지역 감독의 신작도 소개된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윈터 슬립'과 심사위원대상 수상작 '더 원더스', 베를린영화제 알프레드 바우어상을 받은 '사랑은 마시고 노래하며' 등 해외 영화제 화제작들도 상영된다.

한국영화회고전에서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감독과 제작자로 활약해온 정진우 감독의 특별전을 마련했다. 터키 영화 소개하는 '터키 특별전: 뉴 터키 시네마-21세기의 얼굴들', 러시아와 터키, 아르메니아와 인접해 있는 조지아의 여성감독을 소개하는 '조지아 특별전: 여인천하-조지아 여성감독의 힘'도 선보인다. 미얀마·방글라데시·파키스탄·키르키즈스탄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나라의 영화들도 만날 수 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 영화의전당 시대 3년째를 맞았다. 사진은 지난해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영화제 조직위원회 제공

◆ 탕웨이부터 정우성까지 스타 '북적'

영화제를 빛낼 스타들도 빼놓을 수 없다. 올해 개막식은 예년과 달리 영화제 초청작을 중심으로 게스트를 초대해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꾸며질 전망이다.

특히 김태용 감독과의 결혼으로 화제가 된 중국 배우 탕웨이가 개막식에 참석해 관심이 모아진다. 일본의 아사노 타다노부·미우라 하루마·니카이도 후미, 이탈리아 출신의 배우 겸 감독 아시아 아르젠토 등 해외 영화인도 개막식 레드카펫을 밟는다. 한국 배우로는 정우성·김희애·박해일·엄정화·윤계상·이하늬·이제훈·박유천·구혜선 등이 참석한다. 개막식 사회는 일본 배우 와타나베 켄과 문소리가 맡았다.

스타 배우와 감독들을 평소보다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도 마련돼 있다. 박유천·최민식·김희애는 각각 3일과 4일, 5일 해운대 비프빌리지에서 진행되는 '오픈토크'에 참석한다. '일대일'로 초청된 김기덕 감독은 로쟈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이현우와 함께 5일 영화의전당 두레라움 광장에서 열리는 '아주담담'으로 깊이 있는 대담을 나눈다.

'마담 뺑덕'의 정우성·이솜·김희원, '나의 사랑 나의 신부'의 조정석·신민아, '카트'의 염정아·천우희·도경수·지우 등은 해운대 비프빌리지 야외무대에서 무대인사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헝가리의 벨라 타르 감독과 이란의 아스가르 파르하디 감독의 마스터 클래스도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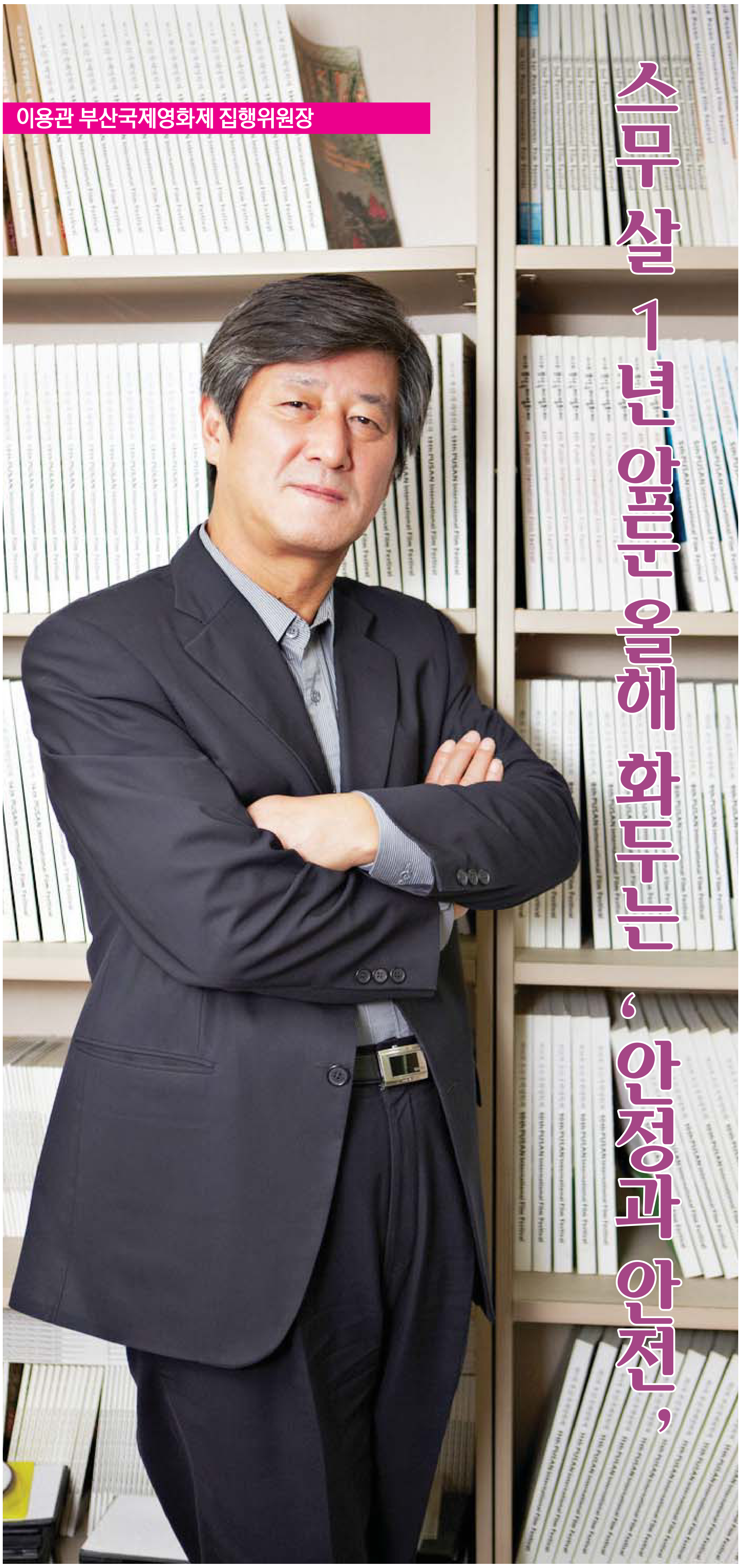
올해 영화제는 20주년을 1년 앞두고 열리는 행사다.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영화제로 관객을 위한 서비스 질 향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화제 개막을 축하하는 화려한 불꽃이 해운대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스무 살 1년 앞둔 올해 화두는 '안정과 안전'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잘 갖춰진 조직으로 창의적으로 조율
최다 관객 동원보다 서비스 질 향상 목표
유종의 미 거둘 20회 지금부터 준비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어느 덧 스무 살을 1년 앞두고 있다. 올해 영화제의 화두는 '안정과 안전'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내실 있으면서도 안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춘 영화제로 관객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최다 관객 동원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전화로 만난 이용관 집행위원장(59·동서대 임권택영화예술대학 학장)은 "이제는 조직이 잘 갖춰진 만큼 안정적인 부분이 잘 드러나는 한 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 19회 영화제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순조롭게 잘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다행히 태풍은 안 올 것 같다. 일기예보대로라면 날씨도 좋을 것 같다.

- 올해 영화제는 20주년을 1년 앞두고 열리는 영화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영화제를 추구한다. 이제는 조직이 잘 갖춰진 만큼 안정적인 부분이 잘 드러나는 한 해이길 바란다. 영화제 관리를 1인 체제를 벗어나 각 파트 별로 창의적으로 잘 조율하면 좋겠다고 매년 이야기해왔다.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일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안전과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밖에도 관객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 영화의전당 시대에 접어든지 어느 덧 3년째다. 올해 특별히 달라지는 점이 있나?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동선을 재정비하는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 이제는 영화의전당도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 같다.

- 올해 영화제의 특징은 개막식 레드카펫 초청 게스트 수를 초청작 위주로 축소했다는 점이다. 앞서 공개된 게스트 명단을 보면 규모 면에서는 지난해보다 훨씬 줄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매년 논란이 된 노출 의혹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로 개막식의 화려함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없는가?

'한국영화의 오늘-비전' 부문의 감독과 배우들이 많이 온다. 이번처럼 몇 차례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를 한다면 잘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 개막식뿐만이 아니라 영화 상영할 때도 출연 배우들이 무대인사나 관객과의 대화 같은 행사에 충실해지는 것 같다. 올해는 탕웨이를 비롯해 외국계 인사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는 잘 맞을 것이다.

- 탕웨이가 김태용 감독과 함께 레드카펫에 오를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김태용 감독도 함께 초청했나?

탕웨이는 개막식 다음날 있을 '황금시대'의 갈라 프레젠테이션 기자회견에만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개막식 참석이 확정됐다. 김태용 감독도 아마 오지 않을까 싶다(웃음).

-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의 상영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영화제가 정치화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영화제는 영화를 상영하는 곳이다. 그리고 영화를 본 관객들과 만나 사람과 사람의 대화와 소통이 오가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자꾸 이런 논란들로 영화제가 정치적인 장이 되는 것이 걱정된다. '다이빙 벨'은 이미 예매도 끝났기 때문에 예정대로 상영할 것이다. 이런 문제로 상영을 취소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영화제를 해나갈 수가 없다.

- 그 동안 카자흐스탄과 부탄 등 아시아 새로운 지역의 영화들을 개막작으로 선정해왔다. 반면 올해는 대만의 '군중낙원'과 홍콩의 '갱스터의 월급날'을 개막작과 폐막작으로 선정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특정 나라를 의식해서 개막작과 폐막작을 선정하지는 않았다. 영화제와 잘 맞는 작품, 연출력과 작품성이 좋은 작품을 선정했다. 프로그래머들이 추천해준 작품들 중에서도 눈에 들어온 작품을 골랐다. 개막작 '군중낙원'은 한국의 상황과도 밀접한 소재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다. 감독의 연출력과 배우들의 연기력이 뛰어나서 개막작으로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폐막작은 몇 작품을 고려했다. 그 중에서도 훈훈하고 코믹한 '갱스터의 월급날'을 골랐다. 폐막작인 만큼 따뜻한 휴머니즘을 담은 영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물론 영화도 재밌고 연출력도 돋보인다.

- 지난해 영화제는 뜻하지 않은 태풍으로 인해 최다 관객 동원에 아쉽게 실패했다. 올해는 관객 동원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

관객 수가 이제는 20만여 명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얼마나 많은 관객을 모으느냐보다 관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 내년이면 부산국제영화제가 20주년을 맞이한다. 내년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잘 해온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정리와 반성을 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총정리하려고 한다. 다만 요란하게 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영화제의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지를 정리하기 위한 20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미리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

사진/한제훈(라운드테이블)

부산 레드카펫 ★이 쏟아진다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흘간의 축제를 시작한다. '영화제의 꽃' 레드카펫 위 스타들의 모습에 관중의 시선이 쏠린다. 개막작인 대만 영화 '군중낙원'의 다섯 출연진부터 '명량' '역린' '해적' 등에서 한국 영화를 빛낸 배우들이 축제를 즐길 준비를 마쳤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차세대 여배우' 김새론·김향기

2000년 생 동갑내기 여배우 김새론과 김향기도 부산을 방문한다. 김새론은 2010년 '아저씨' 원빈·2011년엔 친 여동생들과 함께 레드카펫을 밟았다. 특히 칸 국제영화제와 인연이 깊다. 2009년 '여행자'로 한국 배우 중 최연소로 칸에 진출했고 '도희야'로 칸을 두 번째 방문했다. 이번에도 '도희야'로 초청받았다. KBS2 금요드라마 '하이스쿨 러브온'에 출연 중인 그는 정경호·정유미와 함께 한 '맨홀' 개봉을 앞두고 있다. 김향기는 '우아한 거짓말'로 김희애·고아성과 부산을 방문한다. 영화에서 속 깊고 착한 막내 딸 천지 역을 맡았다. 그는 이 작품으로 제50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여자 신인상을 받아 최연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 해가 다르게 성숙해지는 두 10대 배우의 변신이 축제의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부산 착륙' 명량·해적

올 여름 극장 흥행 열풍을 주도한 '명량'과 '해적:바다로 간 산적'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인기를 이어간다. '명량'에선 권율·오타니료헤이·이정현, '해적'에선 김남길이 개막식을 함께 한다.

이순신 장군의 아들 이회 역으로 열연한 권율은 개막식뿐만 아니라 선발된 10명의 일반인과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네마투게더'에도 배우로 유일하게 참여한다.

'명량'에서 결정적 순간에 기지를 발휘한 여인으로 등장한 이정현은 배우와 MC로 부산을 찾는다. 오는 11일 부산 해운대 영화의 전당에서 조진웅과 폐막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길도 오랜만에 만날 수 있다. '해적'에서 산적단 두목 역으로 코믹 연기를 제대로 보여준 그는 전역 후 처음 레드카펫에 오른다.







'커플샷' 정우성·이솜, 윤계상·이하늬

커플샷을 기대할 만한 배우들이 있다. 정우성과 이솜은 2일 개봉되는 '마담뺑덕'에서 지독한 사랑을 담았다. 정우성은 명망 높은 대학교수에서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한 학규 역으로 생애 첫 치정 멜로에 도전했다. 이솜이 연기한 덕이는 학규를 만나 사랑을 나누지만 학규의 배신에 집착을 품는 캐릭터다. 최근 공개된 한 화보에서 치명적인 매력을 보인 두 사람이 어떤 '레드카펫 케미'를 만들지 기대가 크다.

공개 연인 윤계상과 이하늬도 행사에 참석한다. 레드카펫에 함께 설 가능성은 낮지만 열애 인정 후 한 장소에 두 사람이 있는 건 처음이다. 그룹 god 재결합과 공연으로 바쁜 여름을 보냈던 윤계상은 영화 '레드카펫' 개봉을 앞두고 있다. 19금 영화로 흥행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감독 박정우 역을 맡았다. 일에 있어선 열정적이지만 사랑엔 서툰 캐릭터다. SBS 새 주말극 '모던파머' 촬영에 한창인 이하늬는 '타짜-신의 손'으로 380여만 명(9월 30일 영화진흥위원회 기준)의 관객을 모으며 추석 흥행 퀸에 등극했다. 영화에서 우사장으로 불리는 우지현 역을 맡았다. 팜므파탈이지만 허당스러운 반전 모습으로 작품에 재미를 더했다.

'카펫 여신' 김희애·탕웨이

레드카펫은 여배우들이 패션으로 자존심 대결을 벌이는 곳이다. 그러나 올해부턴 사정이 달라졌다. 집행위원회 측이 '초청작에 집중한 레드카펫', 'BIFF A PAN 스타로드 블루카펫 폐지'를 통해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상식을 넘어선 노출 드레스 경쟁이 영화제의 본질을 퇴색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노출 없이도 섹시한 패션을 추구하는 두 여배우가 부산영화제 런웨이를 걷게 됐다. 김희애는 지난 3월 개봉된 '우아한 거짓말'로 초청됐다. 특히 올해 새로 신설된 '올해의 배우상' 심사위원으로 발탁됐고 오는 11일 폐막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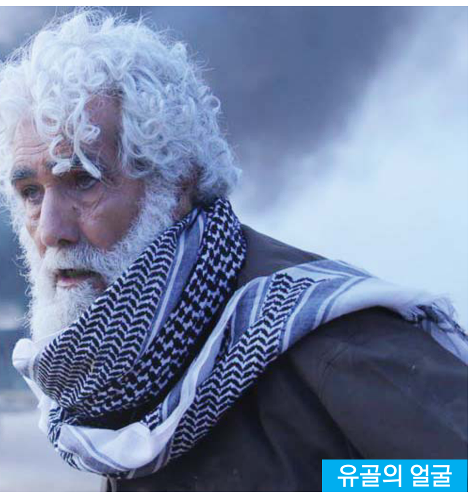
최근 '만추' 김태용 감독과 결혼한 중국 배우 탕웨이는 오는 3일 열리는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초청된 허안화 감독의 '황금시대' 주연 배우 자격으로 부산을 방문한다. 결혼 후 첫 공식 행사인 만큼 김 감독과의 동행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거장의 3D 신작부터

5명의 프로그래머가 선정한 추천작 19편

19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BIFF)에는 지난해보다 13편이 늘어난 79개국 312편의 영화가 초청됐다. 5명의 영화제 프로그래머들이 열흘간 밀려드는 영화의 물결 속에 놓쳐서는 안 될 19편의 영화를 엄선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프로그래머 김지석


유골의 얼굴

이라크의 놀라운 풍자영화.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이 한참이던 시기 이라크 쿠르드 시골마을의 한 무슬림 가정으로 전사한 시체 한 구가 배달돼 온다. 그의 삼촌은 전사한 병사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조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미스터리한 이 사건으로 인해 평범했던 마을에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한다.

[프로그래머 선정평] 사체가 뒤바뀐 소동극. 블랙코미디의 진수.


당신의 세상은 지금 몇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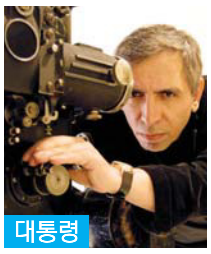
20년 동안의 프랑스 생활을 즉흥적으로 청산하기로 작정한 골리는 자신의 고향인 이란 북서부의 도시 라슈트로 돌아간다. 돌아간 고향에서 그녀를 잘 아는듯한 액자 장인 파하드의 환영을 받지만, 골리는 그에 대한 기억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프로그래머 선정평] 판타지와 멜로가 결합된 독특한 영화. 이란에서도 이렇게 감각적인 영화를 만든다.


5일의 마중

장이모와 공리가 오랜만에 다시 콤비를 이룬 영화. 정치적인 신념으로 강제노동수용소에 오래 수감됐던 루는 문화혁명 이후 석방돼 집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헌신적이었던 아내 펑은 기억상실로 더 이상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수감자 아버지로 인해 죄책감의 굴레 속에 자라야 했던 딸은 낯설 뿐이다. 돌아왔지만 이방인이 된 그는 아내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을 도우며 자신의 허물어진 가정을 되찾고자 노력한다.

[프로그래머 선정평] 장이모와 공리가 다시 콤비를 이룬 감성대작.


대통령

모흐센 마흐말바프 감독의 이 영화는 권력을 잃은 독재자가 자신이 군림했던 세상과 대면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한때 악명 높은 독재자였던 주인공은 쿠데타로 인해 힘을 상실한 후 가족이 모두 떠난 조국에 손자와 함께 남겨졌다. 망명을 위해 준비된 배를 타기 위해서는 자신이 학대했던 세상을 가로지르는 위험천만한 여행을 시작해야 한다. 뮤지션으로 변장한 후 시작된 여정에서 그는 지난날 저지른 자신의 만행을 마주하게 된다.

[프로그래머 선정평] 독재자의 말로. 모흐센 마흐말바프의 의미심장한 작품.


소년, 소녀 그리고 바다

가와세 나오미 감독이 다시 한 번 자연과 인간의관계, 그리고 삶의 본질에 대해 성찰한다. 일본의 조그마한 섬마을을 배경으로 소년, 소녀가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해 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카이토는 이혼한 어머니의 불륜을 의심하고, 교코는 어머니의 임종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자신에게 닥친 아픔을 마주하며 서서히 성장해 간다.

[프로그래머 선정평] 자연과 죽음이 하나되는 철학적 주제의 영화.

프로그래머 남동철


카트

마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거나 청소를 하는 이들로 대부분 여자들이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가 떨어진다. 졸지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파업을 시작한다.

[프로그래머 선정평]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이 세상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들이 죽었다

단역배우로 일하는 상석은 아직 상업영화에 제대로 나와보지 못한 서른 살 청년이다. 친구 재호가 찍는 영화에 출연하면서 밝은 미래를 꿈꾸기도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영화는 중단되고 상석은 자기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한다.

[프로그래머 선정평] 실제 무명배우인 감독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낸 영화. 백재호 감독은 실제 무명배우이지만 아무도 자신을 캐스팅해주지 않자 직접 영화를 만들었다.

가난한 영화감독 지망생이 태국 여자와 결혼해 살아간다. 태국에서 온 아내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애를 먹는데 남편 또한 도움이 안 된다. 너무 가난하고 미래도 없는 막막한 현실, 아내는 어느 날 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다.

[프로그래머 선정평] 가난한 영화인의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그린 작품. 실제 감독이 태국 여자와 결혼했다 헤어진 이야기.


찡찡 막막

애니판 '배트맨'까지

프로그래머 박진형


미스터 캐플란

은퇴한 노인 캐플란씨는 우연히 이웃인 독일인이 나치 전범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나름의 스파이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그 계획으로 인한 그의 변화는 가족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일견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는 영화 같지만 노년의 일상과 감성, 원망 등이 다른 가족들과 자아내는 갈등과 소통, 화해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프로그래머 선정평] 역사와 이념을 뛰어넘는 삶의 진실을 긍정하는 따뜻한 코미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동생 개비를 홀로 돌보며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레이첼의 삶은 고되다. 그녀에게도 사랑이 찾아오지만 애인과 동생과의 동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가족과 연인 사이에도 피할 수 없는 다양한 감정의 공존과 충돌이 세밀하게 묘사된다.

[프로그래머 선정평] 평범하지 않은 가족관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잔잔하지만 다정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작품.


그녀와 함께


오로라

쓰레기 하치장에 버려져 사망한 유아의 뉴스를 접한 소피아는 남다른 슬픔에 빠진다. 아이의 장례식을 치르려는 소피아는 영안실과 행정기관의 제재에 부딪히고 급기야 아이에게 오로라라는 이름을 붙여 자신이 입양하려 한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특별한 애도의 이야기. 생면부지인 아이의 비참한 죽음 앞에 갖는 특별한 감정, 그리고 이를 위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은 지금 개인적, 사회적 애도기에 처한 우리 모두에게 깊은 공감으로 다가온다.

[프로그래머 선정평] 우리 시대의 화두인 '애도'에 관한 영화.

프로그래머 이수원

사랑은 마시고 노래하며

요크셔 외곽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던 배우들은 그들의 친한 친구 라일리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극단에서 한 명이 탈퇴하게 되자, 이들은 그 빈 자리에 죽어가고 있는 친구를 캐스팅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지난 3월 1일 영면에 든 세계적인 거장 알랭 레네의 유작. '밤과 안개' '히로시마 내 사랑' 등과 더불어 가장 정치적인 프랑스 감독으로 여겨졌던 레네가 1980년대 중반부터 이어온 연극적인 영화의 사이클을 마감하는 작품이다. 베를린영화제에서 가장 예술적 공헌도가 높은 작품에 수여하는 알프레드바우어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래머 선정평] 자유로운 영혼과 인생에 대한 예찬으로 가득한 영화.


언어와의 작별

투 데이즈 원 나잇

우울증을 겪은 후 상드라는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한다. 그녀의 직장상사들은 현금 보너스를 걸면서까지 동료에게 그녀의 업무를 맡기려 한다. 상드라는 주말 안에 동료가 보너스를 포기하도록 설득해야만 한다.

[프로그래머 선정평] 벨기에 거장 다르덴 형제의 영화로 자본주의 사회의 그늘에 카메라를 들이댄다. 마리옹 코티아르의 자연스러운 연기를 볼 수 있는 작품.

윈터 슬립

전직 배우 아이딘은 아나톨리아에서 작은 호텔을 운영한다. 젊은 아내 니할과 최근 이혼으로 힘들어하는 여동생 네클라와 함께 산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호텔은 피난처이자 이들의 적대감을 부추기는 감옥이 된다. 뛰어난 영상미로 빛나는 올해 최고의 화제작.

[프로그래머 선정평] 터키 거장 누리 빌게 제일란의 칸 황금종려상 수상작. 올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작품. 1982년 터키 영화로서는 '욜'이 처음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지 30 여 년 만에 다시 터키 영화의 저력을 널리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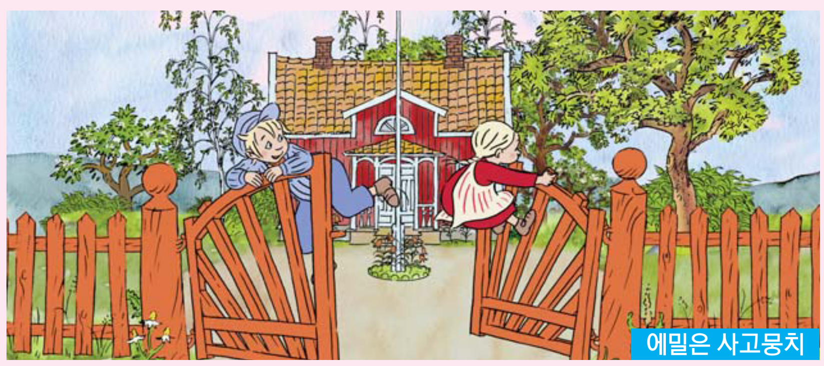

윈터 슬립

언어와의 작별

유부녀와 미혼남이 만나 사랑을 하고 다툰다. 유기견이 마을을 떠돌아다니고 계절은 흘러 남자와 여자가 다시 만난다. 처음과 같은 두 번째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려 한다. 장 뤽 고다르의 3D 신작으로 올해 칸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하였다.

[프로그래머 선정평] 줄거리를 요약하기 힘들지만 고다르의 영화라는 것만으로도 필수 감상 작품.

프로그래머 홍효숙


에밀은 사고뭉치

스몰란드 지방의 작은 농가, 개구쟁이 에밀의 하루는 아기자기한 소동과 일상의 모험으로 가득하다. '말괄량이 삐삐'의 원작자로 잘 알려진 스웨덴의 대표적인 아동문학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에밀은 사고뭉치'가 원작이다. 동심의 눈높이에서 그려낸 성장 동화다. 삶의 풍경과 유쾌한 웃음이 고루 어울린 장편애니메이션이다.

[프로그래머 선정평] 보는 내내 행복 바이러스로 충만하다.

아빠 곰 밤세와 도둑들

40년 이상 폭 넓은 인기를 누려온 스웨덴 만화 '밤세-세상에서 제일 강한 곰' 시리즈의 첫 장편애니메이션. 밤세는 할머니의 꿀에서 얻는 특별한 힘으로 남을 돕는 데 앞장서는 캐릭터다. 악당들에게 납치된 할머니를 구하러 나선 밤세와 친구들의 환상적인 모험을 그린 북유럽 애니메이션의 수작이다.

[프로그래머 선정평] 구성과 캐릭터면에서 애니메이션 버전의 '배트맨: 고담시티'

바다의 노래

아일랜드의 전설을 바탕으로 남매의 모험을 그린 아름다운 동화.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헤어져 도시로 온 작은 섬의 남매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모험을 시작한다. 수채화로 꾸며진 아름다운 화면과 신비로운 음악이 잊혀진 전설을 수놓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감동을 선사한다.

[프로그래머 선정평] 판타지로 그려지는 수채화 풍의 애니메이션,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로 보는 내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작품.

백만장자 강아지 판초의 모험

납치될 위기에 처한 판초는 자신의 대저택을 벗어나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납치범들을 피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판초와 조력자들의 고군분투가 펼쳐진다. 특별한 강아지 판초의 유쾌하고 따스한 모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프로그래머 선정평] 귀엽고 영특하고 감수성까지 풍부한 강아지 판초와 함께 우리 한번 신나게 웃어 보아요.

제시카 "사업 허락 구했다" SM에 반박

퇴출 통보 억울… 홍보대행사 통해 공식입장 표명

걸그룹 소녀시대에서 방출된 제시카(사진)가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제시카는 1일 소속사가 아닌 홍보대행사 시너지 힐앤놀튼을 통해 "당혹스럽고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며 공식 입장을 전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사업을 계획하면서 소속사와 멤버들에게 사업 준비 단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사업에 관해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를 구해왔다"며 "지난 8월 초 블랑(제시카의 패션 브랜드) 론칭 당시 소속사로부터 사업병행에 대한 동의와 허락을 받았고 멤버들로부터 축하를 받으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시카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소녀시대 멤버들은 블랑 론칭 이후 한 달 뒤에 입장을 바꿔 제시카에게 패션 사업과 소녀시대 중 하나만 택할 것을 요구 했다. 이에 대해 제시카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며 "소속사로부터 허락도 받았으며 그동안 소녀시대 활동을 소홀히 한 적이 없고 사업 파트너와의 계약으로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사정에 대해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소녀시대 멤버들의 요구에 제시카는 지난달 16일 소속사 대표를 만나 하나만 택할 수 없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제시카의 주장에 따르면 그 날 소속사로부터 그룹 활동과 개인 사업 병행에 대한 허락을 재확인 받았다. 하지만 제시카는 지난달 29일 소속사로부터 팀에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시카는 이튿날 새벽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회사와 소녀시대 8명으로부터 오늘부로 나는 더 이상 소녀시대의 멤버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제시카 팀 방출 이유를 두고 남자친구로 알려진 사업가 타일러 권과의 결혼설과 미국 유학설 등 여러 가지 추측이 쏟아졌다. 결국 같은 날 오후 SM엔테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카가 패션 관련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논의에도 도저히 팀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향후 당사는 8인 체제의 소녀시대 및 제시카의 개인 활동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매니지먼트를 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속사가 팀 방출 이유로 든 사업 문제에 대해 제시카가 "소속사로부터 허락을 구했다"고 강조하며 정면 반박에 나서 진흙탕 싸움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역시 불굴의 파이터 이정재

액션영화 '빅매치' 주연

이정재(사진), 신하균 주연의 액션영화 '빅매치'(감독 최호)가 오는 12월 개봉을 확정했다.



'빅매치'는 도심 전체를 무대로 천재 악당으로부터 형을 구하기 위한 익호(이정재)의 무한질주를 그린 영화다.

'도둑들'을 시작으로 '신세계'와 '관상'까지 흥행에 성공한 이정재는 이번 영화에서 주인공 최익호 역을 맡아 액션부터 유쾌한 모습까지 선보였다. 여기에 신하균은 최익호에 맞서는 악당 에이스 역으로 새로운 매력을 보여줬다.

'변호인' '군도: 민란의 시대'에서 열연한 이성민, '댄싱퀸' '소원'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라미란, '관상' 한명회 역으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한 김의성, 감초 배우 배성우 등도 합류했다. 또 '메이크 유어 무브'로 할리우드에 진출한 보아가 국내 첫 스크린에 도전했으며 손호준, 최우식 등 젊은 피들이 영화에 함께 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

나영석 PD 이번엔 시골 간다


나영석


이서진



옥택연

이서진·옥택연 출연 '삼시세끼' 연출

tvN 배낭 여행 프로젝트 '꽃보다' 시리즈를 연이어 성공시킨 나영석 PD가 새로운 야외 버라이어티에 도전한다.

배우 이서진, 2PM 옥택연이 출연하는 '삼시세끼'는 도시에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한 끼 식사를 낯설고 한적한 시골에서 어렵게 해결하는 과정을 담을 예정이다. 이서진과 옥택연은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지내며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산골의 음식재료를 활용해 삼시 세 끼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서진은 앞서 '꽃보다 할배' 스페인 편에서 서툰 요리 솜씨로 제작진에게 놀림 받으며 '요리왕'이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삼시세끼' 제작진은 "당시 제작진이 이서진에게 농담처럼 제안했던 가상프로그램 '요리왕 서지니'가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라며 "평소 음식을 거의 만들어 먹지 않는 이서진에게 진짜 음식의 맛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캐스팅 이유를 밝혔다.

옥택연은 이서진과 KBS2 드라마 '참 좋은 시절'에서 형제 역할로 출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그램에서 찰떡 호흡을 보여줄 예정이다.

제작진은 옥택연에 대해 "드라마에서 보여준 이서진과의 호흡이 좋았고 반듯하고 잘생긴 외모와 다르게 웃을 때는 순박하고 성실한 이미지가 이 프로그램과 잘 맞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유학파에 도회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서진과 옥택연이 시골에서 지내는 모습을 통해 이들의 반전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나 PD는 "일상을 짓누르던 모든 짐들은 내려놓은 채 그저 오늘 한 끼 어떻게 때울 걱정만 하면 되는 곳이 '삼시세끼'다. 도시에서는 정말 쉽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밥 한 끼의 가치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시세끼'는 '꽃보다 청춘' 후속으로 오는 17일 오후 9시 50분에 첫 방송된다.

/김지민기자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 보험

다가오는 100세시대, 걱정을 덜어드리는

무배당

100세종합보장보험

보장성보험

- 실버계층 특화 보장강화
- 치아치료 보장 강화
- 중대 질병 고액 보장
- 세제혜택



나만의 행복한 100세 설계 보험!

건강하고 행복한 100번째 생일을 위해
우체국보험이 알차게 준비한 '(무)100세종합보장보험'

“영화 제작 전반을 책임지는 흥미로운 일”

사람이야기

■충무로 흥행메이커
이안나 프로듀서

“프로듀서요? 간단하게 말하면 감독의 매니저라고 할까요? 감독이 영화 연출의 책임을 진다면 프로듀서는 예산과 스케줄, 배우 등 영화 제작의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영화가 만들어지는 처음과 끝을 모두 알 수 있는 직업이죠.”

이안나(34) 프로듀서는 지난 2008년 용인대 영화영상학과 동기인 강형철 감독과 함께 한 영화 ‘과속스캔들’로 충무로에 혜성처럼 나타났다. 영화는 큰 기대를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전국 824만 관객을 모아 흥행에 성공했다. 3년 뒤 선보인 ‘써니’는 80년대 복고 신드롬을 터트리면서 충무로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이어진 ‘써니’의 흥행으로 한국영화계를 이끌어갈 제작자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영화 제작부는 유난히 힘든 파트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해야 하는 파트이기 때문이다. 제작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듀서가 될지라도 영화 제작의 전반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안나 프로듀서는 “감독으로서 연출을 잘 했을 때의 성취감도 있겠지만 제작자로서 아무도 못할 것 같은 일을 해결했을 때의 성취감도 대단하다”며 자긍심을 드러냈다. 물론 자신이 해낸 일이 때로는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일일지라도 말이다. 그는 “감독은 집중력

‘취화선’ 제작부로 영화판 뛰어들어
‘과속스캔들’ ‘써니’ 기대 이상 흥행
‘타짜2’ 계기로 자신만의 색깔 고민



일으키며 736만 관객을 동원했다. 지난달 3일 개봉한 ‘타짜-신의 손’도 지난달 30일까지 누적 관객수 388만 명을 모아 올해 개봉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들 중 최고의 흥행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취화선’을 시작으로 흥행 프로듀서가 되기까지

충무로의 떠오르는 제작자로 주목받고 있지만 처음부터 영화 제작에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었다. 대학에서 영화영상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도 영화보다는 광고 쪽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대학 2학년 때 단편영화를 연출하면서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된 이안나 프로듀서는 3학년에 올라간 뒤 임권택 감독의 ‘취화선’에서 제작부로 영화판에 뛰어들면서 제작자로서의 행보를 걷기 시작했다.

“어르신들이 많은 촬영현장에서 정신없이 일했어요. 어리다고 예뻐해 주시니까 이 일을 잘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무엇보다 제작부만 직함이 있는데 그게 달라질 때마다 생기는 재미가 쏠쏠했어요(웃음). 제작비나 개런티 같은 남들이 궁금해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점도 호기심 많은 성격과 잘 맞았고요.”

이후 이안나 프로듀서는 ‘폰’으로 안병기 감독과 인연을 맺은 뒤 제작부장과 제작실장, 라인 프로듀서 등 여러 직책을 거치면서 영화 제작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쌓아갔다. 프로듀서 직함을 달고 처음 제작한 영화 ‘과속스캔들’이 ‘대박’을 과 고집이 필요한 직업이라면 프로듀서는 저처럼 호기심과 오지랖의 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화를 하는 후배들이 제작부를 기피하는 것에 대한 속상함도 드러냈다. 이안나 프로듀서는 “많은 후배들이 자기 작품으로 데뷔해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경험 부족이라는 딜레마가 생긴다. 좋은 파트너를 제작자로 만나야 하고 경험 있는 스태프들도 함께 해야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은 무엇이든 묵묵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후배들을 만날 때에도 경험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타짜-신의 손’이 남긴 새로운 경험과 고민

최근 개봉한 ‘타짜-신의 손’은 이안나 프로듀서에게 새로운 경험과 또 다른 고민을 안겨줬다. 만화 원작의 기획이라는 점, 그리고 안병기 감독이 대표로 있는 토일렛픽쳐스를 떠나 만든 첫 영화라는 점에서 그러했다. 최동훈 감독의 ‘타짜’와의 비교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기 위해 아예 색깔이 다른 영화를 만들고자 했다.

제작자로서 책임감이 커지다 보니 절친한 강형철 감독과 일과 관련한 문제로 부딪히는 일도 종종 있었다. 그럼에도 완성된 영화는 만족스러웠다. 2012년부터 준비해온 영화가 마침내 개봉해 관객들과 만난 지금, 이안나 프로듀서는 자신만의 색깔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과속스캔들’과 ‘써니’를 할 때는 언제라도 영화판을 떠날 수 있다는 자유로운 마음이 있었어요(웃음). 미련을 두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타짜-신의 손’을 마친 지금은 이안나라는 프로듀서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공부할 것도 배울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음은 여유로워졌지만 책임감은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세 편의 영화를 제작한 이안나 프로듀서는 다음 행보에 대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강형철 감독 같은 신인 감독을 발굴해 “다들 안 된다고 할 때 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감독은 연출에 대한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작품을 많이 못하는 이유 중 하나죠(웃음).”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하고 싶지만 하나의 지향점을 꼽는다면 휴먼 드라마다. 인간적인 이야기를 그리는 것이야 말로 이안나 프로듀서가 지닌 강점일 것이다.

“다음 작품은 초심으로 돌아가 적은 예산의 작은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톱스타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작품이요. 강형철 감독과는 늘 각자 갈 길은 열려 있어요. 강형철 감독이 좋은 시나리오와 프로듀서를 만나거나 제가 좋은 감독을 만난다면 따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강형철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를 쓴다면 저와 같이 하지 않을까요? 최고의 파트너라는 사실은 분명하니까요(웃음).”







위에서부터 영화 ‘과속스캔들’과 ‘써니’ ‘타짜-신의 손’. /롯데엔터테인먼트·CJ엔터테인먼트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김상곤(라운드테이블)

인천 수놓은 손연재 금빛 몸짓

개인종합 예선 1위… 단체전 첫 은메달



1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리듬체조 단체전 결선 및 개인전 예선에서 한국 손연재가 리본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0·연세대)가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인종합 예선을 1위로 통과했다. 김윤희(23·인천시청), 이다애(20·세종대), 이나경(16·세종고)도 맹활약하며 단체전 사상 첫 은메달도 획득했다.

1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개인종합 예선을 겸한 단체전 결승에서 손연재는 볼(17.883점)-후프(17.850점)-리본(17.983점)-곤봉(18.016점) 4종목에서 완벽한 경기를 펼치며 합계 71.732점을 받았다. 지난달 이즈미르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종합에서 기록한 역대 최고 성적(70.933점)보다 높은 점수다.

손연재와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던 중국의 덩썬웨는 합계 70.183점으로 2위에 올랐다. 3위는 아나스타시아 세르쥬코바(68.315점), 4위는 자밀라 라크마토바(68.299점·이상 우즈베키스탄)가 차지했다.

이날 경기에서 손연재는 쾌조의 컨디션으로 네 종목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볼에 이은 후프 종목부터는 경기를 끝낸 뒤 관중들에게 손을 흔드는 여유도 보였다. 취약종목으로 꼽혔던 곤봉에서는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의 지표라 할 수 있는 18점대를 기록했다.

손연재와 함께 단체전에 나선 김윤희, 이다애, 이나경의 활약도 돋보였다. 맏언니 김윤희는 무릎과 발목 부상 속에서 투혼을 발휘했다. 초반 볼과 후프에서 실수를 저질러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후반 리본과 곤봉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16점대의 점수로 은메달을 이끌었다.

손연재와 동갑내기인 이다애도 볼과 후프에 출전해 완숙기에 접어든 실력으로 메달 획득에 힘을 보탰다. 고등학교 1학년 이나경은 리본과 곤봉에서 활약하며 리듬체조 유망주로 눈도장을 찍었다.

경기가 끝난 뒤 손연재는 "정말 많은 응원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내일 경기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집중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손연재는 2일 오후 6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개인종합 결승에 출전한다.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금메달이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여자 핸드볼 8년 만의 정상

통산 6번째 금메달

한국 여자 핸드볼이 8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차지했다.

임영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일 인천 선학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일본과의 결승에서 29-19로 승리했다.

한국은 지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6회 연속 우승에 도전했다. 그러나 준결승에서 일본에 덜미를 잡혀 동메달에 머물렀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8년 만에 다시 아시안게임 정상에 복귀했다. 통산 6번째 금메달이다.



1일 인천 선학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 핸드볼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에서 한국의 김온아가 슛을 성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경기에서 한국은 초반부터 일본을 거세게 몰아세웠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우선희(삼척시청)와 류은희(인천시청)의 연속 득점으로 3-0으로 달아났다. 이후에도 점수차를 계속 벌리며 17-5로 전반을 마쳤다. 후반에도 정지해, 이은비가 연속 골을 넣으며 일본의 추격에서 벗어났다.

한편 동메달은 한국인 윤태일 감독이 지휘하는 카자흐스탄이 차지했다. /장병호기자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 순위

순위	국가	금	은	동
1	중국	131	90	73
2	한국	62	61	66
3	일본	39	63	59
4	카자흐스탄	20	17	29
5	이란	15	11	14

<1일 현재>

한국 AG 5회 연속 2위 수성 '밟다'

금 90개는 어려워… 4대 프로 스포츠 우승 '올킬' 관심

지난달 19일 개막한 인천 아시안게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오는 4일 폐막식을 끝으로 16일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린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45개 회원국 1만3000여 명 선수단이 금메달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36개 전 종목에 선수 831명, 임원 237명 등 총 1068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대회 5회 연속 종합 2위 수성과 금메달 90개를 목표로 한 한국은 1일 오전 10시 현재 금메달 54개, 은메달 55개, 동메달 61개를 따내며 중국(금 126·은 80·동 62개)에 이어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금 37·은 54·동 55개로 3위에 올라 한국과 금메달 격차가 17개다.

안방에서 치러지는 만큼 홈 이점을 최대한 살려 1986년 서울에서 금메달 93개, 2002년 부산에서 96개의 금메달로 2위를 차지했던 수준의 성적을 재현하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 남은 일정을 본다면 종합 2위 수성은 무난하나 목표했던 금메달 90개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박태환

부담감·부상… 금빛 후보 발목 잡아

안방은 홈 이점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 부담감이다. 특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기 종목이나 금메달 유력 후보 선수들에게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진다. 대회 초반 한국에 첫 금메달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여겼던 사격에서 진종오와 김장미가 개인전 금메달을 놓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사격은 지난 광저우 대회보다 5개 적은 8개의 금메달을 일궈냈다.

7개 종목에 출전한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 역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박태환은 금메달 없이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따내며 부담감을 극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세 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총 20개의 메달을 목에 걸며 신기록을 세웠지만, 자신의 이름까지 내건 경기장에서 치른다는 부담 탓인지 아쉽게 금메달은 목에 걸지 못했다.

남자 복식 세계랭킹 1위로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이용대-유연성 역시 세계랭킹 2위인 인도네시아의 모하마드 아흐산-헨드라 세티아완에 금메달을 내줬다. 한국 배드민턴은 7개의 금메달이 걸린 세부 종목 중 유일하게 남자단체전에서만 금메달을 차지했다.

전 종목 석권으로 금메달 4개를 목표했던 골프 역시 여자 개인전에서 따낸 박결의 금메달이 유일했고, 레슬링 남자 자유형에선 동메달 4개에 그치며 '노골드'로 대회를 마쳤다. 그나마 지난 30일 그레코로만 형 71kg급에서 정지현이 따낸 금메달로 레슬링 금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 같은날 대회 첫 태권도 경기에서 4체급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은 윤정연의 은메달이 최고 성적이었다.

'도마의 신' 양학선은 햄스트링 부상에 최고 난도 기술을 구사하지 못하고 도마 부문 은메달을 따는 데 만족해야 했다.



양학선

야구·축구·농구·배구 4대 스포츠 석권 기대

대회 14일 차인 2일부터 한국 선수단은 구기 종목과 '효자 종목'인 태권도를 중심으로 막판 금빛 도전에 나선다. 태권도는 2일 남자 63kg급 이대훈을 필두로 3체급에 출전하고 3일에는 남자 54kg급에 나서 금빛 발차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 남자 축구는 북한을 상대로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한다. 배구도 남녀 모두 선전 중이다. 특히 여자 대표팀은 2일 오후 중국과 금메달을 놓고 결승을 치른다. 준결승전에서 일본을 3-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진출한 대표팀은 지난 광저우에서 은메달을 안긴 중국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각오다.

이미 야구 대표팀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금빛을 이어 '4대 프로 스포츠' 전 종목 금메달 석권이라는 타이틀도 노려볼 만하다.



결승에 진출한 축구 대표(왼쪽). 금메달을 획득한 야구 대표.

비인기·불모지 종목서 터진 금

그나마 펜싱이 금메달 8개를 수확하며 선전을 펼쳤다. 펜싱 대표팀은 금8·은6·동3개를 따내며 역대 최고 기록으로 종합 2연패를 달성했다. 4명이 2관왕에 올랐고 단체 여자 플뢰레 5연패, 단체 남자 에페 3연패 등 압도적인 실력을 뽐냈다. 4개의 금메달을 싹쓸이한 승마와 금메달 5개를 따낸 양궁, 유도는 기대치에 부응하며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의 메달 불모지로 여겨졌던 종목에서도 메달 소식이 잇따랐다. 특히 요트 종목에서 4개 금메달이 쏟아졌다. 남자 470의 김창주·김지훈, 호비16의 김근수·송민재, 남자 옵티미스트의 박성빈, 남자 레이저의 하지민 등이 30일 금 4개를 합작했다. 옵티미스트의 박성빈은 14세의 나이로 아시아 정상에 섰다. 한국 선수단 중 2번째로 어린 그는 한국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라는 영광을 안게 됐다.

조광희는 카누 종목에서 24년 만에 금메달을 수확했고 조정에서 지유진과 김예지가 금메달 2개를 보태며 그동안 금맥이 꽉 막혀있던 종목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한국에 첫 금메달 소식을 전한 종목도 우리에게 낯선 우슈 종목이었다. 이 종목에 첫 출전한 이하성은 장권에서 금메달을 따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산타 75kg급에 출전한 김명진도 금메달을 따내며 우슈 금맥을 이어갔다.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지연. /연합뉴스

대표적인 비인기 종목 정구는 시작과 함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김형준과 김보미가 남녀 단식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하며 대회 후반부에 몰려있는 경기에 힘을 실었다. 이런 큰 대회에서 메달을 많이 따는 것이야말로 정구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뭉클한 기분마저 들게 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K푸드 '떡볶이'… 식품업계, 이색 제품 봇물

푸짐한 재료와 매콤·달콤한 양념 등 남다른 레시피로 승부



(왼쪽부터) 종가집 '데이즈 쌀떡볶이', 오뚜기 '열떡볶이면', CU '자떡라볶이', 요리앤 '마시쪙 바로 그 떡볶이양념'.

국민 대표 간식 '떡볶이'가 최근 미국·중국 등에서도 인기를 얻으며 새로운 한류 음식로 각광받고 있다. 떡볶이를 주 메뉴로 한 프랜차이즈도 봇물처럼 생겨나고 있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와 함께 자신만의 레시피로 간편한 떡볶이 요리를 선보이는 모디슈머 열풍까지 가세하면서 식품업계는 자사만의 특징을 살린 관련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는 등 소리없는 '떡볶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대상FNF 종가집은 '데이즈 쌀떡볶이'는 양념재료가 함께 들어있어 가정은 물론 야외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한 제품을 내놨다. 최적의 저온 건조를 통해 쫀득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살리고 최적의 배합비율로 만들어, 눌러 붙거나 퍼지는 현상을 최소화한 쌀떡과 순창 태양초 고추장과 청양고추를 항아리 원리의 신발효 공법으로 만들어낸 양념으로 구성됐다.

오뚜기의 '열떡볶이면'은 쌀떡이 듬뿍 들어간 화끈한 매운맛의 용기면이다. 매운맛을 강조한 다양한 라면 제품 가운데서도 라면과 떡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신제품이다. 쌀떡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쫀득한 식감이 살아있으며, 하늘초로 맛을 낸 소스로 화끈하고 매콤하게 맛있는 라볶이의 맛을 느낄 수 있다.

한성기업은 '쌀 떡볶이'와 '무뼈 떡닭발' 2종으로 구성된 '맵사이辛(신)'을 선보였다. 매콤하고 맛있는 특제소스가 함께 들어있으며 간편하게 전자레인지나 뜨거운 물을 이용해 떡볶이를 즐길 수 있다. 쫄깃한 쌀떡과 맛에 따라 당면·닭발과 함께 푸짐하게 들어있는 야채의 살아있는 식감을 즐길 수 있다.

편의점 CU는 자사의 PB상품 '자이언트 떡볶이'와 라면을 함께 조리해 먹는 소비자들의 레시피에 착안해 '눈물나게 매운 자떡라볶이'를 출시했다. 기존 '자이언트 떡볶이'보다 더욱 매콤한 특제 고추장소스와 생면이 함께 들어 있어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떡볶이의 인기와 함께 떡볶이 맛 제품도 인기다. 농심은 고추장 떡볶이 맛을 콘셉트로 구멍 뚫린 면발이 이색적인 '볶음쌀면'을 출시했다. 독보적인 면 제조 기술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쌀을 80% 함유한 구멍 뚫린 형태의 면발이 특징이다. 쌀을 주원료로 기름에 튀기지 않고 바람에 건조시켜 조리 후에도 면이 쉽게 퍼지지 않는다. 풍성한 채소건더기와 어묵으로 떡볶이의 맛을 재현했다.

식품업체 요리앤은 전문점 떡볶이의 맛을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게 만든 '바로 그 떡볶이양념'을 내놨다. 한우 육수를 베이스로 국산 고춧가루와 마늘·생강 등을 사용해 깊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요리가 서툰 사람도 제품을 넣고 끓이기만 하면 유명 떡볶이집 못지 않은 중독성 있는 맛의 떡볶이를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 오픈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홍익대학교 대학로 아트센터앞에서 '스타벅스 국내 최초 커뮤니티 스토어 오픈식'을 열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온라인마켓, 연휴 특수잡기 한창

각종 기획전 상품 출시



개천절(3일)·한글날(9일) 등 10월 황금연휴를 맞아 온라인 유통업계가 실속 여행 상품을 내놓고 있다. 11번가는 '쇼킹딜11시'를 통해 50여 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전국 방방곳곳 가을여행' 기획전을 10월 한달간 운영한다. 여행 전문MD가 엄선한 관광지 입장권·체험권·숙박권 등을 선보이고 지역 특산물과 문화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을 강화했다.

가족과 연인을 위한 '대관령 양떼목장과 커피거리' 당일여행은 2만4900원에, 담양 '죽녹원+메타세콰이어+전주한옥마을' 패키지는 2만8000원이다. '강원 설악산 자유 단풍여행'은 1만9000원, '주왕산 주산지 단풍여행'은 2만7900원에 내놨다.

연휴를 이용해 단풍 나들이에 나서는 등산객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관련 용품 기획전도 선보이고 있다.

옥션은 2일 올킬 특가 상품으로 산악용 자전거 MTB 자전거 시드니 26인치를 50% 할인한 5만9900원 판매하고 오벨로의 리피 접이식자전거 20형(8만9900원)·씨앤피바이크의 자전거 패드 속바지(9900원)등 자전거와 용품도 할인가에 준비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스시유' 인천AG 폐막식 만찬에 선정

5일까지 코스메뉴 주문시 돗구리 서비스 제공
강강술래, 구이메뉴 2인분 주문시 1인분 덤증정
온라인쇼핑몰 모짜렐라·통등심 돈가스 40%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운영 중인 일본 정통 스시전문점 '스시유(www.sushiu.net)'가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만찬 일식 부문에 선정됐다.

스시 장인인 마쯔도 토시오 쉐프의 에도마에 정통 스시를 맛볼 수 있는 스시유는 오는 3일 진행되는 폐막식 만찬에 초청된 VIP, 임원 및 관계자들에게 일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시유는 선정을 기념해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코스요리를 주문하는 고객에게 돗구리(일본청주) 1병을 서비스로 제공한다.

같은 기간 강강술래 서초점과 여의도점은 매장에서 왕양념갈비·한우모둠구이·한우광양불고기 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역삼점도 왕양념갈비 '2+1 행사'를 벌인다.

쇼핑몰(www.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5일까지 국내산 돼지 통등심 100%와 자연산 치즈를 넣은 영양간식 통등심돈가스(3박스·2만7000원)와 모짜렐라돈가스(3박스·3만2400원)를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조선청화靑畵, 그 푸르름에 물들다' 전시회 티켓과 여드름·아토피성 피부질환에 뛰어난 효능을 지닌 엠플러스케어 게르마늄 비누세트를 증정한다. /정영일기자

이마트, '생닭 역대 최저가' 판매

이마트가 닭고기 소비 촉진행사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계농가 돕기에 나선다.

2일부터 1주일동안 백숙용 생닭(1kg)을 2500원에 판매한다. 이는 역대 최저가라는 것이 마트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 행사가격은 정상가 7100원 대비 64.7%, 기존 할인 행사때 평균가격인 4800원 보다 48%나 저렴한 것이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준 도매 시세 가격인 2671원 보다도 6.4%나 저렴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마트가 역대 최저가 행사를 기획하게 된 것은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 계육 시세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9월 생닭(1kg)의 도매 시세는 2671원으로 전년(3409원)에 비해 21% 넘게 감소했다. 최근 5년 동안 시세 중 가장 낮은 것이다.

한편 이마트 에브리데이도 오는 7일까지 계육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주요 행사 상품으로 볶음탕용 생닭(600g) 2팩을 5980원에 판매하며, 녹차먹여 키운 훈제오리(600g)도 8980원에 판매한다. 또 오는 3일 단 하루 진행되는 '왕찬싼데이' 행사에서는 무항생제 백숙용 생닭(800g 이상·봉)을 4500원에 내놓는다. /정영일기자



"황금연휴, 갈 곳 많네…"

'문화의 달' 전국 1200개 축제·행사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전국 17개 시·도에서 1200여 개의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가 주관하는 이번 문화의 달은 '문화로 함께 웃습니다'를 주제로 진행돼 국민에게 좀 더 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광주에서는 '2014 문화의 달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17일부터 3일간 광주시 주요 지역에서 ▲광장 페스티벌(5·18 민주광장) ▲대인예술시장 페스티벌 ▲동명동골목 페스티벌 ▲푸른길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등이 이어진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서 광주의 기념 행사와 연계한 전시와 공연,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진다.

광역시에서는 부산 불꽃축제(10월 24~25일)와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10월 11~12일) 등 국내 유명 축제로 자리 잡은 시민 축제형 행사가 개최된다. 도단위 지역에서는 ▲아리랑 대축제(강원 정선·10월 9~12일) ▲백제문화제(충남 공주·9월 26일~10월 5일) ▲탐라 문화제(제주·10월 2~6일) ▲전주 세계 소리축제(전북 전주·10월 8~12일)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경북 안동·9월 26일~10월 5일) ▲남강유등축제(경남 진주·10월 1~12일) 등 지역 고유문화를 소재로 한 축제가 매력을 뽐낸다.

또 클래식이나 댄스, 사진·미술 등 다양한 생활문화 동호회들이 숨은 재능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잔치도 열린다. 이가운데 우수 행사를 선정해 다음달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지역별 우수 동호회들이 모두 모이는 전국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이 외에도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와 나눔과 배려의 문화 등을 주제로 한 ▲한국 민속예술축제(10월 4~5일) ▲한복의 날 행사(10월 24~26일)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10월 7~10일) 등의 행사와 국립극단과 국립오페라단 등 국립예술단체도 수준 높은 공연을 한다.

문화의 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4 문화의 달 통합 안내 웹페이지(www.culture.go.kr/moc)'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추억 쌓기 페스티벌 '주목'

도심 속 가족 단위 체험형 이벤트 다양하게 열려

최근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부모와 자녀를 위한 다양한 가족단위 체험형 페스티벌이 등장하고 있다. 흥미로운 이벤트는 물론 자연스러운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이런 페스티벌은 부모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족의 추억과 정을 쌓아 올릴 수 있는 페스티벌을 소개한다.



◆도로 위 난장, '하이서울 페스티벌'

먼저 도시 속의 자유로운 거리예술 축제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길에서 놀자'라는 주제로 5일까지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열린다.

7개국 54개 거리예술 단체의 공연과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통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청계광장 일대에서 벌어지는 '길동이를 이겨라!'에서는 축제자원활동가를 상대로 ▲땅따먹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등 다양한 추억의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또 모바일·온라인게임과 보드게임 등 어린이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아이들과 함께 신나는 연휴를 보낼 수 있다.

◆'서울 와우 북페스티벌'

오는 11일 '책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문화예술 축제 '서울 와우 북페스티벌'은 TV와 컴퓨터·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활자를 읽는 매력을 선사한다.

5일까지 홍대 거리 일대에서 '책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되는 축제는 와우 어린이 책놀이터, 팝업북 체험, 북아트 만들기 등 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아리랑페스티벌'

이와 함께 아리랑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페스티벌도 빠트릴 수 없다. '2014 서울아리랑페스티벌'(사진)은 서울시와 서울아리랑페스티벌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복합 문화예술 축제로 10일부터 12일까지 광화문 북측광장과 경희궁·국악로 일대에서 펼쳐진다.

'희망의 노래, 아리랑'을 주제로 개막식부터 다채로운 아리랑 공연과 연희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시민의 염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조각나무 2014개로 이뤄진 대형 한글 조형물 '2014개의 아리랑'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12일에는 전문 예술인과 경연을 통해 참여한 일반인들로 이뤄진 1600여 명 규모의 대형 퍼레이드가 대미를 장식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뷰티·패션업계 '요우커' 잡아라

중국어 통역·은련카드 결제 서비스 제공

중국인 관광객(요우커·遊客)이 대거 몰려올 중국 최대 연휴 국경절을 맞아 뷰티·패션업계가 고객 맞이 준비를 끝냈다.

패션그룹 형지의 크로커다일레이디는 서울·제주 등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높은 지역의 90여개 매장에서 중국어 전화 통역서비스와 은련카드 결제 서비스를 전개한다.



중국 관광객 응대 매뉴얼도 전국 매장에 배포한다. 매장 매니저들이 간단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중국어 기본회화 매뉴얼을 제작했으며, 매장 내 포스터와 제작물도 중국어로 번역해 편의를 돕는다.

LG생활건강 궁중 한방화장품 후는 국경절을 맞아 비단·자개 장식의 패키지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면세점 전용 특별세트 '후 천기단 왕후세트'와 '후 천기단 화현 세트'를 선보인다.

멀티 화장품 브랜드숍 보떼(BEAUTE) 명동 1·2호점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은련카드·jcb카드 결제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00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20% 할인 해준다.

비욘드 명동 매장은 모델 김수현 등신대를 세워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으로 꾸몄다. 중국어 브로슈어·카탈로그로 제품 설명 등을 제공해 중국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더페이스샵은 명동 상권을 중심으로 약 100여 명의 판매 직원 중 90여 명을 중국·일본인으로 채용해 외국인 고객 응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명동 매장에서 외국인 고객이 1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숙소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박지원기자 pjw@

화장품, '바다'를 품다

사해 소금·동해수 크림 등 신제품 봇물

뷰티업계가 올 가을 '바다'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화장품업체들이 동해 바다의 심층수·사해 소금 등 바다 성분을 담은 수분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자연이 만든 레시피는 동해 바다에서 얻은 해양 심층수가 함유된 '동해수 모이스처 크림'(사진)을 출시했다.

강원도 동해의 수심 600m에서 뽑아 올린 심층수를 베이스로 참미역 추출물과 우뭇가사리 추출물 등 바다에서 얻은 8가지 천연 보습 성분을 담았다. 특히 피부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을 다량 함유해 촉촉하고 투명한 피부로 가꿔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어퓨는 사해 소금을 10% 함유한 고보습 크림 '에센셜소스 솔트크림'을 선보였다. 사해 바다의 소금은 칼슘·브롬·마그네슘 등 30여 가지 미네랄이 풍부해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니스프리가 리뉴얼 출시한 '에코 사이언스 링클 스팟 에센스'는 미역이 자라는 동안 모든 영양소를 응축하고 있는 청정 제주 갈색 바다 식물인 '미역귀'를 원료로 했다. 미역귀는 미역의 생식기관으로 피부 항산화·재생력이 탁월해 피부가 스스로 건강해지도록 돕는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박지원기자

이대목동병원, '간 질환' 건강강좌



이대목동병원 간센터(센터장 유권)가 7일 오후 2시 병원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간 질환'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좌에서는 ▲간경화의 합병증(유권 간센터 센터장) ▲간에 좋은 약과 음식(김태헌 교수) ▲간 이식 전후(홍근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또 간 질환 전문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져 평소 궁금했던 간 관리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간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강좌 후에는 추첨을 통해 무수면 위내시경(3명), 복부초음파(1명) 무료 검진권 등이 제공된다. 문의: 02)2650-2508

/황재용기자



SCREEN
영화의 발견
SCREEN
Weekly Magazine
| 10월 11일 토요일 낮 12시 첫 방송 |
에네스 카야 | 영화, 방송인
허희 | 문학평론가
허남웅 | 영화평론가, 기자
t.cast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CHAMP
FOX
FOXlife
FX



악수하는 어제의 라이벌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 신청사 집무실에서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 자격으로 방문한 나경원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격돌한 바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인양' 꺼낸 심재철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언제까지 바닷 속에 둘 것인가"

새누리당 심재철(사진) 의원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필요하지만 세월호를 언제까지 바닷 속에 계속 놔둘지 정부는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실종자 수색뿐 아니라 침몰 원인과 책임소재를 제대로 규명하고,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고,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서도 인양이 불가피한데 언제까지 어떻게 할지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는 인양 작업에 최소 석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는데, 늦가을부터 수온뿐 아니라 기온이 내려가고 12월부터 잠수사 입수가 어렵다"며 "북서풍까지 불기 시작하면 풍랑이 거세 바지선 운영을 못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자칫 시기를 놓치면 겨울을 넘기고 내년 3월 이후에야 다시 수색 작업이 재개될 텐데 세월호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날 시행에 들어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싼 요금제로 보조금이 줄어 단말기가 그 만큼 비싸지는 구조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통신비를 인하받느냐"며 "경쟁을 촉진할 보조금까지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세월호 겪고도 달라진 게 없었다



기자 수첩

조 현 정 <정치사회부 기자>

또 다시 여객선이 좌초돼 대형 인명 피해가 날 뻔했다.

지난달 30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에서 유람선 바캉스호가 암초에 좌초됐다. 이 배에는 관광객 105명과 승무원 5명 등 모두 110명이 타고 있었다. 다행히 전원 구조됐지만 세월호 참사 다섯 달 만에 사고의 악몽이 되살아 나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사고 유람선은 선령이 27년으로 세월호보다 7년이나 더 운항한 낡은 배다. 증개축 작업을 거쳐 정원을 350명에서 500명으로 늘린 것도 세월호와 비슷하다. 운항 허가 당시 선박 노후 문제 탓에 홍도 주민의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져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달라진게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후 선박의 안전성 문제가 부각된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한 데 따른 예고된 인재였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승무원과 승객들은 침착하게 대응해 최초 신고 접수 28분 만에 구조를 마쳤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빠른 시간에 승객 전원을 구조할 수 있었던 것은 구명 조끼를 나눠주고 승객들을 대피시킨 선원들과 신속하게 구조에 나선 인근 유람선, 어선들 덕분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 의식은 크게 높아졌지만 당국의 허술한 안전 시스템은 여전히 심각하다. 해상 안전과 당국의 대처 능력은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이 이번 사고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이후 선령을 제한하고 연안 여객선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다. 재난 사고는 예고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국민은 늘 불안하다. 보여주기 위해 포장만 그럴 듯한 대책이 아닌 실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절실하다. 세월호의 뼈 아픈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장병들에게 손 흔드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6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합참 의장, 사관생도 등과 함께 행사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통일은 軍 사명"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북핵 해결 시급한 과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군과 국민이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일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6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얼마 전 유엔의 여러 회의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날 국제 사회가 크게 우려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북한 인권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기 위해 우리 군은 대북 억제와 대응 능력은 물론, 한반도 안정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군으로 더욱 크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북한은 핵이 남북 관계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직시하고, 하루 속히 핵을 포기하고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와 관련, "우리 군은 이러한 안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북한의 도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 요인까지 철저히 차단하는 전방위 총력 안보 태세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하루에 몰아서

●여야 대표가 하루씩 따로 날을 잡아 실시했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하루에 한꺼번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여야간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지금 국회 일정을 많이 허비했으므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교섭단체 연설을 양당 대표가 하루에 다 끝낼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서 국제 현안 등 논의

●한·일 양국은 1일 일본 도쿄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차관급 전략대화를 열고 양국 관계 현안, 북한·북핵 문제, 동북아 정세 및 국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국민 49.1% "정부, 대북 삐라살포 막아야"

●우리 국민의 절반 가량은 정부가 대북 전단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공개한 '2014년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대북 전단살포 차단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4.6%포인트가 증가한 49.1%로 조사됐다.

이정현, "벼룩도 낯짝 있어야" 세비인상 반대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내년 세비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국회의원 세비를 3.8% 인상한다는 안에 예결위원으로서 분명히 반대하겠다"며 "공무원 봉급 일괄 인상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감안해도 국회의원 스스로 세비 인상안에 대해선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했다. 우리 국회가 무슨 낯으로 세비 인상안에 스스로 동의한단 말이냐"며 "이 것은 염치의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낯 뜨거워 찬성도 동의도 할 수 없다. 이런 사안이 논란이 되는 것만으로도 몸이 오그라들 정도로 부끄럽다"며 "19대 국회 들어 작년과 금년에 국민에게 보여주었던 국회의 민낯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인상 거부가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일반 공무원인 국회 사무처 직원 봉급 인상은 이와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 15일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이 돈을 쓸 수가 없다"며 여야 의원 전원에게 지급된 추석 상여금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학자금·햇살론 연체자 채무 '탕감'

이달부터 6만3천명에 원금의 최대 70% 감면

이달부터 학자금과 햇살론 대출이 연체된 청년층과 저소득층 6만3000명은 원금의 최고 70%와 이자 전액을 순차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자금대출 및 햇살론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안'을 내놨다.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에 대한 매입근거를 담은 한국장학재단법이 개정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 채권평가 등을 거쳐 기관 간 채권양수도계약을 맺었다.

지원 연체 대상자는 지난해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상태로 신용대출 채무원금은 1억원 이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자금대출 채무 연체자 5만8592명과 햇살론 연체자 4120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키로 했다.

이들의 채권 원금은 학자금 대출 3031억원, 햇살론 대출 204억원 등 모두 3235억원이다.

정부는 채무자의 연령과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이자 전액과 채권원금을 감면할 방침이다. 일반 채무자는 감면액이 30~50%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가치 만큼 채무를 갚아야 한다.

상환은 최장 10년까지 분할해서 갚으면 된다. 채무자가 대학생이면 재학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아울러 학자금대출과 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한 맞춤형 취업도 도와준다.

채무조정 대상자들은 이달중 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 등을 거쳐 가약정을 체결한 약 2만명은 약정체결 후 즉시 지원이 가능하다.

또 개별신청이 없더라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연체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동일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자사고에 쏠린 눈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휘문고에서 2015학년도 입학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51일만에 열린 '비정상' 본회의

여의도 패트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여야의 세월호법 협상이 타결되면서 151일 만에 '입법 제로'의 오명을 벗고 국회가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2시간 남짓 동안 90개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약 2분에 1개씩 법안 통과가 진행된 셈이다.

언뜻 보면 졸속 통과로 생각될 수 있다. 그간 세월호법 문제로 미뤄진 법안을 그냥 통과시켜버린 '비정상' 본회의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 수 있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회의 풍경은 원래 이렇다. 정상이 아닌 듯 보였던 이날 밤 풍경이 일상이다. 본회의 법안 통과 절차는 간단하다. 법안 설명 간략히 하고 의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버튼을 눌러 '찬성', '반대' 표결로 통과시키는 절차다. 물론 법안 통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정부 질문, 안건 토론 등 길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본회의 백미는 법안 통과다.

그렇다면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의원들은 그 짧은 시간 법안에 대해 제대로 알고 버튼을 누를까. 지난주 국회 입법조사처 주최 포럼에서 여당의 한 의원이 고백한 바 있다. "다른 의원들은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만 나는 상정된 법안 요지를 미리 보좌진에게 준비시켜 그 것을 읽고 들어간다" 다시말해 본인은 대략이라도 법안 요지를 읽고 표결에 참여하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양심 고백이다.

여야 입장이 첨예한 법안이 아니면 본회의 표결은 요식 행위로 이뤄진다. 그래서 상임위 활동이 중요하다. 상임위에서 법안을 갈고 다듬어 내놓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앉은 의원들이 각 상임위를 믿고 표결한다.

상임위 과신이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생활의 불편을 초래해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법'도 그 중 하나다. 그럴 듯한 정부의 설득 명분에 넘어간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통과시켰고 유예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제야 그 부작용을 우린 겪고 있다.

최근 여러 의원들이 구속됐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불법 로비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 것을 상임위 다른 의원들은 알지 못할 수 있다. 발의된 법안의 부작용은 의도적으로 숨어 있고, 장점만 부각되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정신차리지 않으면 엉터리 법안이 의외로 쉽게 통과될 수도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한다. 국회의원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앞으로 법안 요지 정도는 필독하고 표결해주길 바란다.

/조현정기자 jhj@

'음주운전 사고' 현정화 장애인AG 선수촌장 사임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현정화(45)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이 1일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선수촌장직에서 사임했다.

현 감독은 조직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부적절한 행위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조직위는 이를 즉각 수리했다.

현 감독은 이날 오전 0시 5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재규어 승용차를 몰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부근 사거리를 지나다가 오모(56)씨가 운전하던 그랜저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남자 승객 1명이 부상했다.

사고 직후 현 감독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을 훨씬 넘는 0.201%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다혜기자

세월호 침몰순간 캔맥주 마신 기관장

"천벌받아도 할 말 없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도 캔맥주를 마시며 구조를 기다린 세월호 기관부 책임자인 기관장이 "천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죽을죄를 졌다"고 사죄했다.

기관장 박모(55)씨는 1일 광주지법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20회 공판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을 받고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박씨는 "뇌성마비로 지체장애 3급인 자식이 있다"며 "(내가 구조돼) 나중에 병원 가서 보니 전원 구조됐다는 소식이 들려 안도했는데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해도 자녀가 죽은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겠나 싶다.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천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세월호 3층 갑판에서 기관부 선원들과 모여 해경 구조를 기다리면서 캔맥주를 마셨으며 다친 조리부 승무원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캔 맥주를 마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느냐"고 변호사가 묻자 박씨는 "나 자신도 용납이 안 된다"며 "제 정신이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고 답변했다.

/윤다혜기자 ydh@



지난달 30일 상명대학교가 '융합형 창의디자인 인재양성 특성화 사업단 사업설명회·워크숍'을 개최했다. /상명대 제공

상명대, '융합형 창의디자인 인재양성' 설명회

상명대학교가 지난달 30일 '융합형 창의디자인 인재양성 특성화 사업단 사업설명회·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상명대 천안캠퍼스 텍스타일디자인학과와 산업디자인학과가 각각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에서 예체능분야에 선정됐다.

상명대는 CK-1 예체능분야가 8%에 그치는 적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두 학과의 정통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정원감축 없이 특성화사업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사업단 명칭은 '장조경제를 선도하는 융합형 창의디자인 인재양성 사업단'이며 사업단장은 텍스타일디자인학과의 강성해 교수다.

앞으로 두 학과는 '융합형 창의디자인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 사업을 통해 취업과 창업 역량 강화를 비롯해 융합형 창의디자인 인재를 양성하는 SLD 연계전공을 개설 운영한다.


Москва вернулась в 1960-е

3 Во дворе. Горожане жили на улице
5 Поехали! В космос взяли всех
6 Связь поколений. Чёрно-белого цвета

가가린처럼 달 착륙!

metro Russia

50년 전 생활 재현

우주에서 돌아온 유리 가가린, 집 앞 마당에서 펼쳐지는 체스 대결….

최근 구소련 사람들의 생활을 재현하는 연극 단체 '흐루시쵸프카'가 모스크바의 한 마을에서 50년 전 소련의 모습을 재현해 눈길을 끌었다.

◆ '무릎 치마' 복고 패션쇼

관광객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은 복고 패션쇼. 모델들은 화장과 헤어스타일, 무릎까지 내려오는 치마와 스타킹으로 1960년대 여성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했다.

◆ 마당에선 무슨 일이

신나는 체스 경기가 야외에서 펼쳐졌다. 과거 공동체 생활에 익숙해져 개별 주택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던 소련 남성은 거리에 나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당시 남성들이 모이는 곳에는 손에 땀을 쥐는 체스 경기가 펼쳐졌다.

◆ 시럽 '쏙' 소련식 칵테일

시럽이 들어간 소련식 탄산음료와 칵테일. 음료는 30분 동안 당시 가격 그대로 판매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 모두 우주로 가자!

마을에 꾸며진 '우주 공간'에서는 모두 가가린이 됐다. 관람객은 '최초의 우주 비행사에게 영광을', '유리 가가린 최고!'라는 글귀가 적혀있는 포토존에서 가가린처럼 달 착륙의 기쁨을 느끼며 사진을 찍었다. /정리=조선미기자

홍콩 시위대 "퇴진 689"

中 국경일 맞아 긴장 고조…렁 장관 등장에 '표준어 분노'

1일 중국 국경일 연휴를 맞아 홍콩 민주화 시위 참가자가 증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위대 수백명은 이날 오전 국경일 국기 게양식이 거행된 완차이 골든 보히니아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상당수는 최루가스 등을 우산으로 받아내며 경찰에 맞섰다. 일부는 노란 리본을 묶은 손을 들어 엑스자 표시를 만들며 침묵 시위를 했다. 20여 명은 행사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이 제지했다.

렁춘잉 행정장관이 행사장에 나타나자 시위대는 홍콩에서 사용하는 광둥어 대신 중국 표준어인 푸퉁화로 "퇴진 689"라고 외쳤다. 689는 간접선거로 진행된 2012년 행정장관 선거에서 1200명의 선거위원 중 렁 장관을 지지한 위원의 수를 뜻한다.

이런 가운데 몇몇 친중국 성향 시민은 "렁춘잉을 지지한다"고 외쳤다. 시위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센터럴을 점령하라' 지도부에는 살해 위협 낙서가 된 편지봉투가 배달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민주화 시위라는 '돌발 사태' 속에 건국 65주년을 맞았다.

시 주석은 전날 오후 전현직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65주년을 자축했다. 시 주석은 홍콩 시위를 염두에 둔 듯 연설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본토)의 이익과 홍콩·마카오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위는 홍콩 경제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국경절을 전후로 열흘 가량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아 매년 홍콩이 누리던 특수가 실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화통신은 홍콩의 대형 유통 업체가 국경절 연휴 기간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도심에 있는 점포의 절반 가량은 시위로 문을 닫은 상태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스트레스 한방에 사라지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어바인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베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베개 싸움' 기록을 깨기 위해 약 4200명이 참가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및 확인기일



■칼럼 박민성 변호사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법원에서 정해 준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것이라는 확정적인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은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협의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법원에서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협의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는 해당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는데, 부부가 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임신 중인 자를 포함해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후에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된 후에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이혼 신청을 한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다시 부부가 출석하면 되나, 위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중 일방이 협의이혼을 한다고 해 놓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협의이혼의 과정에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진 02)592-2224

日 온타케산 분화 희생자 45명

상당수 돌에 맞아 치명상…2차 폭발 우려

1일 일본 온타케산(3067m) 분화 참사 현장에서 등산객 10여 명이 심폐정지 상태로 또 발견됐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온타케산 분화로 희생된 등산객은 지금까지 45명 안팎이다.

온타케산 분화에 따른 사망자 중 상당수는 분화 때 튀어나온 돌(분석)에 맞아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인을 조사한 의사들은 사망자의 몸에서 다수의 멍자국과 베인 상처, 머리를 직격당한 흔적 등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도쿄대 지진연구소의 전문가를 인용, 분석의 크기는 10~20cm 정도로 분화구에서 시속 700~800km로 날아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온타케산의 화산성 미동이 분화를 시작한 지난달 27일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2차 분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선미기자

미국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확진 첫 환자 나와

미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확진 환자가 처음 나왔다.

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텍사스의 병원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와 유사한 증세로 검사를 받은 환자가 에볼라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에볼라에 감염됐다는 확진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볼라가 창궐하는 서아프리카 5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에볼라 감염 진단을 받은 첫 경우이기도 하다. 앞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의료 봉사 도중 에볼라에 감염된 미국인 의사 등은 본국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완쾌됐다. 최근 확진을 받은 이 환자는 라이베리아 여행을 다녀온 뒤 에볼라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CDC는 지난 7월 말부터 이 환자를 제외한 12명이 미국에서 에볼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선미기자

다음카카오 "세상의 모든 것 연결한다"

어제 공식 출범… 최세훈·이석우 공동대표 체제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하겠다."

시가총액 10조원의 거대기업으로 첫발을 내딛은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과 카카오의 합병법인인 다음카카오가 '새로운 연결, 새로운 세상'(Connect Everything)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정보, 사람과 온라인·오프라인, 사람과 사물 등 새로운 연결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다음카카오는 1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 '다음카카오 데이원'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지난 5월 합병 계약 합의이후 4개월간 통합작업이 결실을 본 셈이다.

최세훈 공동대표는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은 단순한 더하기가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밑거름 삼아 큰 가치를 이루는 융합이 될 것"이라며 "흰색 바탕에 검은색 서체로 이뤄진 다음카카오의 기업이미지(CI)도 다음이 강조해 온 4가지 색과 카카오의 노란색을 빛으로 합치면 흰색, 물감으로 합치면 검은색이 된다는 점에 착안해 젊음, 유연함, 소통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최세훈(왼쪽),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다음카카오'의 공식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석우 공동대표는 "다음카카오가 가고자 하는 길은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이며 또 하나 주목하는 키워드는 바로 커넥트(연결)"라며 "다음카카오는 사람-사람, 사람-정보, 사람-비즈니스, 사람-사물 등 4개의 연결에 주목해 파트너들과 동반성장하는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기회와 재미의 가치, 편리함의 가치, 공유의 가치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카카오의 새 둥지는 판교에 꾸려질 예정이다. 전체 인원 3300여명 중 제주 본사에서 근무할 인원을 뺀 2700여명이 함께 일할 공간을 서울에서 찾기 힘들었다는 설명이다.

항간이 일고 있는 양사 조직 간의 불화설은 일축했다.

이 대표는 "다음과 카카오의 문화를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다음카카오의 공통된 가치가 있고 구성원 세대차가 크지 않아 긍정적 융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 다음카카오의 첫 서비스는 공개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최 대표는 "현재 다음카카오 신규 프로젝트 여러 개가 한꺼번에 돌아가고 있다"며 "조만간 다음카카오가 강조한 '4가지 연결'을 보여주는 서비스나 사업을 줄줄이 선보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서경배 아모레 회장 주식 부자 2위 등극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제치고 주식 부자 2위에 등극했다.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2.5배 증가한 덕이다.

1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서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가치는 6조7607억원으로 집계됐다. 정회장(6조5057억원)보다 2500억원이 많다.

서회장의 상장사 주식가치는 지난해 말 2조7169억원에 그쳐 정회장보다 4조원 적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종가 기준 지난해 말 100만원에서 전날 239만2000원으로 껑충 뛰어 롯데제과(217만9000원), 롯데칠성(217만3000원)을 제치고 '황제주'가 됐다.

지난달 29일 장중 252만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회장은 아모레퍼시픽 주식 62만6445주와 아모레퍼시픽그룹 보통주(아모레G) 444만4362주, 아모레퍼시픽그룹 우선주(아모레G우) 12만2974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박성훈기자 zen@



내년 공휴일은 며칠일까 1일 서울 중구 필동의 한 인쇄소에서 홍보도우미들이 막 인쇄돼 나온 2015년 달력을 선보이고 있다. 중외제약은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빠르게 달력을 제작해 각 병의원과 약국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간편결제 시장 급성장…보안문제 해결 분주

업계, 개인정보 유출 방지 프로그램 개발 '혼신'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이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대두된 보안문제 해결에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 PC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모바일 결제 급증에 따라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모습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한 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달 LG CNS와 협력해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를 출시했다. 출시 한달도 채 되지 않아 가입자 50만명을 넘어서면서 가능성을 입증했다.

네이버 역시 자회사 캠프모바일을 통해 옐로페이와 손잡고 네이버 밴드에서 소액 송금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 역시 간편 결제 서비스인 '페이나우 플러스'를 통해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는 이용자 급증만큼이나 보안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도 고민을 안고 있다. PC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그래도 보안을 위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해 방지하지만 휴대전화에서는 이 같은 모습이 덜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최근 LG유플러스의 페이나우 플러스에 주목하고 있다. 페이나우 플러스는 기존 페이나우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며 보안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새롭게 선보인 대표적인 보안기술이 ARS 본인 인증방식이다. LG유플러스가 특허를 출원한 ARS 인증은 이용자가 '080 ARS 시스템'으로 직접 전화를 걸면 실제 사용 모바일 번호와 ARS로 걸려온 발신 번호가 일치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mOTP 방식 또한 함께 선보였는데, 이는 결제를 요청할 때마다 시스템에서 모바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전송해 매 결제 시 비밀번호가 바뀌어 보안부분을 강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간편 결제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인정보나 금융 정보가 담긴 모바일이 최근 해커들의 타겟이 되고 있는 만큼 국내 간편 결제 서비스 업체뿐 아니라 이용자들도 모바일 보안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market index <1일>

코스피	1991.54	(-28.55)
코스닥	566.99	(-6.23)
금리(국고채 3년)	2.22	(-0.08)
환율(원·달러)	1063.50	(+8.50)



'윈도9'은 없다?

MS, '윈도10' 출시 예고

마이크로소프트(MS)가 차세대 운영체제(OS) '윈도10'의 PC용 테크니컬 프리뷰 버전을 공개했다. '혁신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윈도9'를 건너뛴 것이 눈길을 끈다.

MS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비즈니스 고객을 겨냥한 행사를 열고 '윈도10'의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MS에 따르면 윈도10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 플랫폼'이란 점이다. PC와 스마트폰은 물론 태블릿·엑스박스(게임기)·TV·키보드·마우스·콘트롤러 등 모든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부상하는 사물인터넷(IoT)부터 데이터센터도 윈도10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시작메뉴는 윈도7과 윈도8의 결합 형태다. 자주 쓰는 기능과 파일로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멀티 데스크탑도 확 바뀌었다. 업무용·개인용 화면을 구분해 용도에 따라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

작업표시줄에 추가된 새로운 작업보기 버튼으로 열려 있는 모든 앱과 파일을 한번에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밖에 사용자 계정 유출·도용·피싱 등을 방지하는 기능도 개선했다.

MS는 윈도10의 소비자 관련 기능에 대한 세부사항을 내년 초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국명기자

연금복권520 제170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2조	277688
		3조	922990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559747
4등	100만원	각조	55266
5등	2만원	각조	928
6등	2000원	각조	98, 25
7등	1000원	각조	1, 7

출처 : 나눔로또 공식홈페이지(www.nlotto.co.kr)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제2재보험사 연내 설립 물건너가나

아시아캐피탈 예비인가 신청 미뤄… 코리안리 독과점 유지

국내 제2재보험사(가칭 팬아시안리) 설립을 추진했던 아시아 인베스트먼트 캐피탈(아시아캐피탈)이 금융감독원에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당초 지난달 말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한 예비인가 신청안은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제2재보험사 연내 설립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아시아캐피탈은 당초 계획과 달리 제2재보험사(가칭 팬아시안리) 예비인가 신청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아시아캐피탈은 지난달 중순 예비인가 신청의 사전 단계인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면서 9월 중으로 예비인가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확인 결과 신청서류는 접수되지 않았다.

올 초 설립된 아시아 캐피탈은 당초 계획인 3000억원의 설립 자본금 투자에 호조를 보이면서 팬아시안리 설립에 속도를 냈다.

팬아시안리 설립에 투자한 기관사 중에서는 금융사 총 6개사도 포함됐다. 은행권에서는 전북은행이 200억원을, 보험권에서는 ING생명이 200억원을, 증권업계에서는 우리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이 각각 100억원씩을, 캐피탈업계에서는 IBK캐피탈 등 2개사가 각각 100억원씩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아시아 캐피탈이 예비인가 신청안을 접수하지 않자 업계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코리안리와의 경쟁관계 형성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코리안리는 지난 1997년 국내 재보험시장 자유화로 뮌헨리(Munich Re), 스위스리(Swiss Re) 등의 해외업체가 국내에 진출한 후에도 시장점유율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3000억원의 신생 재보험사가 8조원의 코리안리와 경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또 재보험의 특수성 상 30여년간 코리아리가 국내 안팎에서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보험업의 특성상 초기 3~5년 동안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펀딩규모가 100억~300억원 정도인 소규모 투자자로 구성된 팬아시안리가 설립될 경우 경영을 책임질 만한 명확한 대주주가 없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재보험업계에 새로운 재보험의 출범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재무건전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충족할 만한 재보험사의 등장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측이 펀딩 액수보다는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성격을 놓고 신중한 검토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며"일러야 내년 중에야 제2재보험사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신한카드 창립 7주년

위성호 사장 "선도사업자로 거듭나야"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가진 창립 7주년 기념식에서 "지금은 카드 사태 이후 10년만에 패러다임의 대변혁 시기"라며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신한카드는 옛 LG카드와 신한카드가 통합 출범한 2007년 10월 1일을 창립일로 삼고 있으며, 신용카드업에 진출한 창업 기준으로는 29주년이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오른쪽 두번째)이 1일 창립기념식 직후 열린 377번째 아름인도서관 개관식에서 어린이에게 책을 선물하고 있다.

이날 위 사장은 2200만 고객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특히 "현재는 카드산업의 저성장 구도 진입과 스마트 기기의 발달, 결제 기술의 혁신, 고객 보호를 위한 시장의 기대치 상향 등 카드 사태 이후 10년 만에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대(大)변혁의 시기"라며 "시장과 고객 모두가 인정하는 'BIG to GREAT' 도약을 위한 골든 타임(Golden Time)을 맞이한 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진정한 선도사업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사장은 이어▲'따뜻한 금융'의 현장 실천 강화▲빅데이타 경영의 실질적 성과 창출▲미래 성장동력 발굴▲혁신 조직문화 정착 등 4가지 사항을 전 임직원이 함께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또 20~30대 회원 기반 확대와 결제 시장 판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이날 창립기념식 직후 서울 남가좌동에 위치한 서대문종합복지관 별관에서 377번째 아름인도서관 개관식도 가졌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우리銀, '中企 기술금융 지원' 우리은행은 1일 대구광역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손잡고 '중소 벤처기업 기술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 왼쪽부터)이순우 우리은행장이 권영진 시장, 김선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4대 금융그룹 회장·행장 '영남' 천하

KB 차기 회장도 'TK' 거론… 관치 비판론

국내 금융계는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출신이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우리, 하나 등 3대 금융그룹의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은 모두 TK나 PK 출신이다.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를 졸업했으며, 신한은행 서진원 행장은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대구계성고를 졸업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도 경북 상주 출신이었다.

우리은행장을 겸하고 있는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고를 졸업한 TK다. 전임자인 이팔성 회장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경남 진교농고를 졸업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모두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김 회장은 경남고를 졸업했다.

여기에 경북 예천 출신으로 경북 대창고를 졸업한 김주하 농협은행장을 합친다면 국내 은행권은 가히 'TK·PK' 천하라고 할 수 있다. 차기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금융계 인사들마저 모두 TK 출신이다.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과 이종휘 전 우리은행장은 TK의 본산인 대구 출신으로 두 사람 모두 경북 사대부고를 졸업했으며,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은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경북 상주고를 나왔다.

차기 KB금융지주 회장 인선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점은 외부 출신의 금융권 인사가 오느냐 아니면 KB 내부 출신 인사가 뽑히느냐다.

그러나 본질은 'TK 대 비TK'의 대결 구도라는 게 은행권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평가다.

실제로 KB 내부 출신 중 유력 후보로 꼽히는 민병덕 전 행장(충남 천안)과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전남 나주), 김옥찬 전 부행장(서울), 윤웅원 KB금융지주 회장 직무대행(경기 용인)은 모두 비영남 출신이다.

이처럼 후진적인 관치금융의 현실에 대해 KB금융그룹 등 금융계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김민지기자 minji@

KB, '미상환 채권 찾아주기 캠페인'

KB국민은행이 1일부터 만기 경과 후 장기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미상환 국민은행채권을 고객에게 찾아주기 위해 '미상환 채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만기일이 지났지만 찾아가지 않은 국민은행채권 금액은 약 1200억원 수준이다. 대부분 발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발행여부를 잊어버린 경우다.

채권의 원금은 상환기일로부터 10년, 이자는 지급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KB국민은행은 미상환된 등록채권(통장식)의 경우 등록된 소지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상환을 안내하고, 현물채권(증서식)은 양도가 자유로워 소지자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영업점 내 안내문을 비치해 상환을 안내할 계획이다.

미상환 국민은행 채권을 보유한 고객은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김민지기자


"내 딸이 사라졌다.
범인은 가족 중 한 명이다!"
tvN 일일드라마
가족의비밀
tvN 일일드라마의 부활!
신은경 김승수 차화연 류태준 이일화 효영
10월 27일 {월} 저녁 8시 tvN 1화 방송 * 매주 {월~목} 방송

약정만 맺어도 사은품 제공

KDB대우증권은 10월 한 달간 주식 대차약정 서비스를 신규 신청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은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해당 서비스에 3000만원 이상 신청한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는 1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한다.

10억원 이상 신청 고객은 선착순 40명까지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대차거래란 주식을 보유한 고객이 일정 기간에 주식을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말한다.

주식을 빌린 고객은 대여기간 동안 의결권을 제외한 유상·배상 등의 권리를 보전받게 되며, 기간이 끝난 후 동종·동량의 주식을 차입자에게서 상환받는다.

또 고객이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연 0.02%의 대차약정수수료가 제공된다.

일반적인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가 실제로 보유 주식이 수요자에게 대여될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차별화된다.

류희석 마케팅부장은 "대차거래 서비스를 널리 알려 고객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저금리시대에 장기 보유 중인 주식을 활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KDB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 및 HTS(QwayNeo)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김현정기자

2000선 방어 내수에 달렸다

달러 강세·글로벌 자금이탈 우려가 이달 증시 최대 변수

10월 국내 주식시장의 최대 관건은 미 달러강세로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선진국'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자금 이탈 우려가 될 전망이다.

기업들 실적 부진도 우려 요인이지만 이미 이익 추정치가 상당히 낮아졌으므로 추가 하락할 여지가 크지 않다. 한국이 다른 신흥국보다 상대적으로 탄탄한 수급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환율 변화를 고려하면 안심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10월 첫날 코스피지수는 2000선이 붕괴됐다. 홍콩의 시위가 국경절을 맞아 확산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고 원·달러 환율도 장중 1063원까지 오르는 등 달러 강세를 보였다.

증시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 달간 코스피가 또 다시 2000선을 뚫고 내려가지 않으려면 내수 경기민감주의 활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승훈 대신증권 연구원은 "10월 코스피 2000선 방어의 관건은 금융, 건설, 유통, 철강 등 정책 관련주로 불리는 내수 경기민감주의 향방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변화 속에서 국내 증시가 정책 효과만으로 버티기엔 어려울 전망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또 삼성전자가 실적발표 포문을 열면 오히려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삼성전자 등 대형주의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조정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삼성전자를 뺀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는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삼성전자 실적발표가 지나가면 오히려 실적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 흐름이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4조원대까지 내려잡은 증권사들이 나온 상황에서 '어닝쇼크'가 나타나지 않는 한, 지수가 더 빠질 우려가 높지 않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미 달러화 강세는 전반적인 신흥국 자금 이탈을 초래하므로 국내 증시에 계속 상당한 무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신흥국 시장이 얼마나 취약해지느냐는 이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달렸다"며 "이달 테이퍼링 종료 이후 기준금리 인상 이전에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이 언급된다면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범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뚜렷한 수급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롯데, 자원봉사 전용카드 '눈길'

롯데카드는 1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리투스서비스와 손잡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V-BIG멤버스 롯데체크카드'를 출시했다.

'V-BIG멤버스 롯데체크카드'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적 유지와 적극적인 활동에 필요한 동기부여를 위해 기획한 공익형 카드로, V-BIG멤버스카드와 롯데체크카드가 결합해 할인·포인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의 사회복지자원봉사자들에게 발급되는 멤버십카드인 'V-BIG멤버스'의 혜택에 롯데멤버스 서비스가 더해진 것이다.

특히 롯데멤버스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금액에 따라 최고 5%를 적립해준다. 적립된 롯데멤버스와 V-BIG멤버스 포인트는 각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롯데백화점 5% 할인 e-쿠폰,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50% 할인, 롯데시네마 1500원 할인 등 롯데체크카드의 기본 혜택도 제공된다.

발급자격기준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 1회 이상, 10시간(누적) 이상 자원봉사 시간인증을 받은 자원봉사자여야 한다.

신청은 BIG멤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기업들이 자원봉사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V-BIG 멤버스롯데체크카드를 출시하게 됐다"며 "V-BIG멤버스 롯데체크카드가 자원봉사 참여확대와 동기부여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변액보험 지켜 드릴게요" ING생명은 1일 '변액보험 지킴이'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200여명을 선발했다고 1일 밝혔다. ING생명 변액보험 지킴이들이 제작된 변액보험 판매 가이드북을 보고 있다. /ING생명 제공

LIG 손보, '내마음 아는 암보험' 출시

LIG손해보험은 1일 암 종류와 진행 단계에 따라 보장내용을 세분화한 '내마음 아는 암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재진단암진단비' 특약 가입시 만기 시점인 100세까지 암 재발 횟수에 관계없이 암진단비를 지속적으로 보장한다. 다만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해야 진단비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은 제외된다.

'단계별 암진단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특약에 가입하면 암 진행정도에 따른 추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5000만원 한도 가입시 1기부터 3기암에 대해 5000만원, 4기암 또는 특정암에 대해 1억원을 지급한다.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특정소액암도 단계별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단, 가입 1년 미만 시 50%, 유방암의 경우 추가적으로 180일 미만시 10% 감액지급)

/김형석기자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 못한다"

12곳 중 10개사 금감원 권고 거부 파장

생명보험사 대부분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자살사망보험금 지급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업체들은 자살은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달 12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이 중 현대라이프생명과 에이스생명 2곳만 수용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에 당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8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고객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뒤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금감원의 권고에 반발한 한화, 교보, 동부 등 9개사는 보험사는 민원인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분쟁조정국에 접수된 자살보험금 관련 민원 39건에 대해 해당 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할지를 지난달 30일까지 결정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생보사들은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사망 보험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교통사고나 재해로 숨졌을 때 받는 재해사망 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의 2~4배에 달한다.

한편 금감원이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에 따르면 미지급된 보험금 2179억원 중 금감원의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의 금액은 각각 69억원, 7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ING생명(653억원), 삼성생명(563억원), 교보생명(223억원), 알리안츠(150억원) 등은 전체 미지급 보험금의 96%에 달한다.

/김형석기자 khs84041@

LG 옵티머스 LTE2 '속앓이'

업그레이드 포기…고객 불만

LG전자가 옵티머스 LTE2(사진)의 킷캣 업그레이드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LG전자는 그동안 옵티머스 LTE2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안드로이드4.4 킷캣 업그레이드 요구로 내부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최근 공식적으로 업그레이드 계획이 없음을 알렸다.



현재 안드로이드 킷캣 업그레이드를 마친 LG전자 스마트폰은 G플렉스, Gx, 뷰2, G패드, 옵티머스G, 옵티머스G프로, 옵티머스LTE3, GK 등 9개 모델이다. 이는 경쟁사보다 2배 이상 높은 업그레이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슷한 사양을 가진 제품임에도 유독 '옵티머스 LTE2'만 OS업그레이드가 지원되지 않고 있어 사용자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이에 소비자는 "사후 서비스 문제있다" "옵티머스 LTE2는 버린 제품인가" 등의 불멘소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LG전자가 옵티머스 LTE2 업그레이드 포기를 선언한데는 바로 시스템 메모리가 걸림돌이었다.

2012년 5월 출시된 옵티머스 LTE2는 16GB 내장메모리를 적용했으며, 그 중 시스템 메모리로 1GB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스템 메모리는 기본 OS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는 구글, 통신사, 제조사 관련 앱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간이다. 이 때문에 킷캣을 해당 기기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 시스템 메모리 초과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LG전자 관계자는 "옵티머스 LTE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내부적으로 꾸준히 테스트를 했지만 메모리 용량 부분은 해결할 수 없었다"며 "OS 업체와 제조업체의 타임라인(새로운 OS를 발표하는 시점과 제품 출시시기의 시간차이)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단통법 시행 첫날…매장은 한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라 휴대전화 보조금이 처음으로 공개된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보조금 규모가 이전보다 적다는 불만이 적지 않게 나왔다. 이런 이유로 휴대전화 매장은 대부분 한산한 분위기였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의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LPG 자가용 트렁크 불편 끝!

르노삼성-LPG협회, 국내 첫 '도넛형' 연료탱크 개발

기존 LPG자동차의 트렁크 공간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도넛형 LPG 탱크를 적용한 차량(사진)이 국내에도 출시된다.



대한LPG협회와 르노삼성자동차는 1일 '도넛형 LPG 연료탱크'의 양산 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이를 적용한 LPG차량이 출시된다고 밝혔다.

기존 LPG차량은 부피가 큰 원통형 연료 탱크가 트렁크에 있어 짐을 실을 공간이 협소해지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납작한 도넛 모양을 채택한 신형 LPG 탱크는 하단 스페어타이어 공간에 탑재돼 트렁크를 최대한 넓게 활용할 수 있다.

르노삼성차는 이날 국내 최초로 도넛형 탱크를 탑재한 'SM5 LPLi DONUT ' 차량을 공개했다. 이 모델은 트렁크 체감 용적이 40% 가량 넓어져 휠체어나 유모차, 여행용 가방, 캠핑용품 등을 무리 없이 실을 수 있다. 연료 탱크의 강도가 세지고 무게는 줄어들어 차량의 안전성과 연비가 높아진 것도 장점이다.

연제현 르노삼성차 기획조정분석팀장은 "신개념 LPG 탱크 'DONUT'을 적용한 SM5는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안전성과 연비, 주행성능을 향상시킨 프리미엄 승용차로, 택시는 물론 렌터카 장애인 등 LPG차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LPG협회와 르노삼성차는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 확대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김민준기자 mjkim@

신입사원 34% 3개월 이내 퇴사

신입사원 10명 중 4명은 입사 3개월 안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지난 1년간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 311개사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조기퇴사 여부'에 대해 1일 조사한 결과 77.2%의 기업이 조기 퇴사한 신입이 있었다고 답했다.

신입사원 조기 퇴사자의 비율은 평균 34%였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35.8%), '중견기업'(21.3%), '대기업'(18.8%) 순이었다.

퇴사는 '3개월'(23.3%) 내에 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개월 이내 회사를 그만 두었다는 비율도 16.7%로 신입사원의 40%는 입사 3개월 이내 퇴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6개월'(15.4%), '2개월'(12.1%), '2주'(8.8%), '12개월'(7.1%) 등의 순서를 보였으며 '일주일 이하'도 5%나 됐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구직자들은 조기퇴사라는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 지원 전 직무와 적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은 조기퇴사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나 원인분석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채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수상

The-K 예다함상조 김호영 대표

국내 상조업계의 선두 기업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상조회사 The-K 예다함상조의 김호영(**사진 왼쪽**) 대표이사가 '2014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윤리경영 부문을 수상했다.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14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경쟁력을 드높인 인물을 경제리더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김 대표는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통한 윤리경영으로 새로운 상조문화를 선도하고자 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당 부문에 선정됐다.

김 대표는 현대그룹으로 입사해 현대해상화재보험 부사장을 거쳤다. 2012년 예다함 대표이사에 선임된 이후 고객납입금을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내부직원들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지역별로 윤리실천 리더를 선정해 윤리경영 사례 전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kt금호렌터카, 첫 '보는 ARS' 도입

kt금호렌터카가 업계 최초로 '보는 ARS(Automatic Response System)'를 도입했다.

'보는 ARS'는 kt금호렌터카 고객센터(☎1588-1230)에 전화를 걸면 음성통화와 함께 핸드폰 화면 안내가 제공되는 첨단 서비스다. 기존 음성ARS의 경우 음성안내를 계속 듣고 있어야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하는 메뉴를 휴대전화 화면에서 바로 선택할 수 있어 빠르고 편리하다.

'보는 ARS'는 별도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kt금호렌터카 앱을 설치한 고객은 핸드폰 화면 안내로 자동 접속되므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임의택기자 ferrari5@

솔로 이코노미 바람, '미니 오피스텔' 뜬다

1~2인 가구, 2025년 62.5%로 증가 전망에
실용·경제성 높은 소형 오피스텔 수요 꾸준

공급과잉 논란과 함께 최근 들어 전셋집을 대체할 수 있는 투룸 이상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활발해지면서 한때 봇물을 이뤘던 소형 오피스텔의 분양이 주춤해졌다. 그러나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시대로 접어든 만큼, 소형 오피스텔의 수급은 꾸준할 것이라는 업계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존 4인 가구 기준으로 개발되던 아파트·오피스텔이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잡기 위한 '미니' 상품으로 속속 전환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1~2인 가구는 전체의 48.2%인 835만여 가구로, 2025년에는 과반이 훨씬 넘는 6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4인 가구 비율은 13.2%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산업은행 연구소는 올해 국내 경제 트렌드 중 하나로 솔로 이코노미를 지목했다. 또 이들의 소비지출 규모가 2010년 60조원에서 2020년 120조, 2030년에는 194조원으로 늘어나 4인가구 소비지출 규모 178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특히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률 저하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오피스텔 시장에서 1~2인 가구를 잡기 위해 실용성과 경제성을 높인 소형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롯데건설은 송도국제도시 5·7공구 M1블록에서 '송도 캠퍼스타운 스카이' 2차분을 분양 중이다. 총 1835실, 전용면적 26~34㎡의 스튜디오 타입 원룸형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이 단지 바로 앞인 초역세권 단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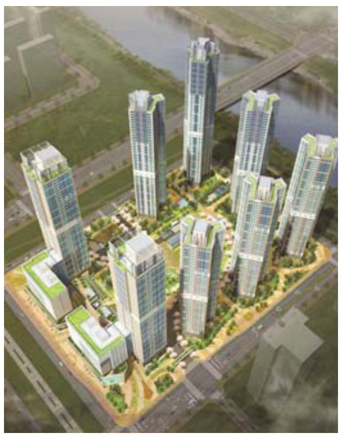
송도 캠퍼스타운 스카이 분양 관계자는 "3.3㎡당 500만원대의 저렴한 분양가인데다 주변 임대 시세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대료 55만~60만원 정도에 형성돼 있어 6%를 전후한 수익률이 기대된다"며 "오피스텔 시장이 침체돼 있음에도 지난달 모델하우스 오픈 이후 계약률이 60%를 넘어선 상태"라고 말했다.

한신공영은 경북 김천시 혁신도시 17-0블록에 '김천혁신도시 한신 휴시티'를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 25~32㎡, 총 736실 규모로 김천혁신도시 내 최대 규모다. 김천혁신도시는 첨단과학기술과 교통의 허브로 조성되며, 총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

포스코A&C는 서울 강동구 강일지구 중심상업지구에 '강일 포디움'을 공급한다. 강일지구 내 최초 브랜드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22~26㎡, 총 252실 규모다. 강일지구에는 지난 2012년 삼성엔지니어링이 입주했고, 올해까지 한국종합기술과학, 세스코, 세종텔레콤 등 기업 10여 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소형 오피스텔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지만 은행 금리보다 2~3%포인트 높은 평균 4~5% 수준이고, 매달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투자에 앞서 입지, 분양가, 기존 공급량, 경쟁 상품인 소형 아파트 여부 등을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송도 캠퍼스타운 스카이 조감도.

'타운형 스트리트 몰' 조성

반도, 카림애비뉴 동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타운형 스트리트 몰'이 조성된다. 미국형 쇼핑타운인 '타운플라자'와 연도형 상가인 '스트리트 몰'이 결합된 신개념 상가다.

반도건설은 1일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C15블록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단지 내 상가로 타운형 스트리트 몰인 '카림애비뉴 동탄'을 이달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상가는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로 꼽히는 카림 라시드가 디자인에, 일본 롯폰기힐스를 개발한 모리빌딩이 전체적인 개발 계획에 참여했다.

특히 카림 라시드는 현대카드, LG전자, 현대자동차 등과의 디자인 협업으로 국내에서도 유명하다. 지난 7월 반도건설이 세종시 1-4생활권에 공급해 한 달 만에 분양을 완료한 '카림애비뉴 세종' 상가 디자인에도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적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다른 상가와 차별화를 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타운형의 상가를 성곽처럼 꾸미되, 메인 광장 인근에 카림 라시드 특유의 패턴과 컬러가 조합된 길을 조성했다.

연면적 6만224㎡로 총 440여개의 점포가 들어서고, 예상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1층이 3.3㎡당 2500만원, 2층이 1000만원 선이다. 지하에는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8300㎡의 규모로 입점이 확정됐다.

카림 라시드는 "카림 애비뉴 동탄은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는 라인(line)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생동감 넘치는 컬러와 패턴, 조형물을 통해 사람들이 문화를 누리고 생활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세종시 '카림 애비뉴 세종'에 이어 신도시 브랜드 상가 분양의 성공 신화를 이어갈 것"이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의 약 15%의 물량은 분양을 하지않고 반도건설이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카림 라시드가 디자인 작업에 참여한 '카림애비뉴 동탄' 상가 콘셉트와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미래형 컴퓨터 의자 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한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2014 G-FAIR KOREA)에 참가 중인 한 업체 관계자가 관람객에게 편안하게 앉아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의자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공제조합, 국토부 퇴직 22명 낙하산 취업

2006년 이후 9년 동안 건설공제조합 등 8개 민간 공제조합에 국토교통부 퇴직공무원 22명이 낙하산으로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이 1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건설·교통 관련 민간 공제조합 취업현황' 따르면, 2006년 이후 지난 9년간 전문건설공제조합(5명), 설비건설공제조합(4명), 건설공제조합(3명)등 3개 건설관련 민간 공제조합에 12명의 국토부 퇴직공무원(4급이상)이 임원(이사장, 상근이사, 상근감사)로 취업했다.

교통관련 민간 공제조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화물공제조합(4명), 전세버스공제조합(3명) 등에 10명의 국토부 퇴직공무원이 임원으로 취업했다.

건설공제조합 등 3개 건설관련 민간 공제조합은 6만2000여개 건설업체가 가입되어 있고, 총자산도 11조 29억원으로 재정이 넉넉하다. 이러다 보니 낙하산으로 내려온 퇴직공무원 급여수준도 후하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국토부에서 내려온 현 이사장은 연봉 3억원 수준이고, 지난 3월 국토부 퇴직공무원으로 이미 내정되었지만 세월호 사건과 내부반발 등으로 취업이 지연되고 있는 전무이사도 연봉이 2억원에 달한다.

교통관련 민간 공제조합도 마찬가지다. 49만여대의 택시·버스·화물 회사(또는 개인차주)가 가입하고 있는 5개 교통관련 민간 공제조합의 총자산 규모도 1조7579억원. 이들 5개 교통관련 민간 공제조합도 임원으로 취업한 국토부 퇴직공무원에게 높은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전세버스공제조합의 경우 올 1월 그 동안 없던 상임감사 직위를 새롭게 신설하고 국토부 출신 과장을 내정하면서 연봉을 1억3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기업이 아니다 보니, 국토부가 승인하고 공제조합이 형식적인 내부 의결절차만 거치면 고액연봉을 받을 수 있어 국토부와 공제조합이 소위 말하는 '짬짜미'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후임 낙하산 인사가 내정되지 않아 공제조합 자체 심의절차가 연기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건설공제조합은 올해 2월 말 후임 전무이사 인준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당일까지 후임 전무이사로 미리 내정된 국토부 인사의 퇴직절차(3월 퇴직)가 마무리되지 않아 운영위원회를 연기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건설공제조합이 이렇게 국토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은 현 이사장과 전임 이사장이 모두 국토부 출신 낙하산이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김두탁기자 kimdt@

국화 먹으면 오래 산다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국화는 눈으로 보고 감상만 하는 꽃이 아니라 식용으로도 먹는 꽃이다. 봄에는 싹을 먹고, 여름에는 잎을 먹으며 가을에는 꽃을 먹고, 겨울에는 뿌리를 먹으면 좋다고 했는데 가을에 먹는 꽃 중에는 국화가 대표적이다.

국화차는 가을에 음미해야 향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국화주 역시 선선한 가을밤에 마셔야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찹쌀가루 반죽해 국화를 붙인 국화전도 가을 음식이다. 우리 조상님들은 봄철인 음력 3월 3일 삼짇날에는 진달래, 음력 9월 9일인 가을의 중양절에는 국화로 화전을 부쳤다.

중양절은 음력 9월 9일로 양(陽)이 겹친 날이라는 뜻에서 중양(重陽節)이다. 이날 국화를 먹는 이유는 가을이 국화의 계절이고 국화가 사군자의 하나여서 선비가 숭상하는 꽃이어서가 아니다. 국화에는 또 다른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옛 사람들은 중양절에 산수유를 품으면 액운을 막고, 국화를 먹으면 오래 산다고 믿었다. 산수유는 별명이 벽사옹(?邪翁), 국화는 연수객(延壽客)인데 벽사옹은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뜻이고 연수객은 수명을 늘린다는 의미다.

국화가 장수의 상징이 된 데는 이유가 있다. 4세기 진나라 때 문헌, 포박자(抱朴子)에 국화 먹고 오래 살았다는 전설이 실려 있다. 남양이라는 곳에 감곡수(甘谷水)라는 약수가 있었다. 가을이면 주변에 국화가 만발해 물 위로 꽃잎이 떨어졌다. 꽃잎이 떨어진 물맛이 국화차 마시는 것처럼 감미로워 사람들은 따로 우물을 파지 않고 꽃물을 그대로 마셨다. 덕분에 마을 사람 중에 오래 살지 않는 이가 없어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은 150살까지 살았다.

국화가 몸에 좋기는 좋은 모양이다. 본초강목에는 두통을 없애고 귀를 밝게 해준다고 했고 조선후기 산림경제에도 국화는 약재로 술을 담그면 좋다고 했다. 중양절은 다가올 겨울에 대비해 건강을 챙기며 장수를 기원했던 날이기에 국화로 술을 빚고 차를 마시며 화전을 부쳤던 것이다. 오늘이 중양절이다.

/음식문화평론가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군무원 취업중 진급할 수 있을까요 현재 직장서 신뢰 쌓으면 기회 있어

Q 람보강 남자 69년 6월 27일 양력 인시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기기사를 하던 중 포기하고 있던 미군부대 군무원으로 취업을 어렵게 하게 되었습니다. 4개월 전 생전 처음 해보는 클럽 주방보조가 되어 요리까지 해야 하는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더 있어야 진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빨리 지금 생활에서 벗어나 제가 원하는 곳으로 진급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환경 분야로 지원하려고 새로 환경보건학 공부를 시작 했는데 공부도 잘 마치고 그 분야로 일할 수 있을 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A 직업을 선택할 때 학구적으로 본다면 전공, 적성도 중요하겠으나 자신의 인생관과 현실적으로 갖춰진 능력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신체적 조건 등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가치관 검사, 흥미검사, 적성검사 등등)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왕이면 나를 잘 아는 친구나 부모님, 형제, 자매 등의 의견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할 것은 적성검사는 지능검사처럼 능력의 어떤 측면만을 밝혀주는 자료일 뿐 자신이 어떤 분야에 능력이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가치관과 취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람 있고 재미도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가 하는 일을 꾸준히 하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을 해야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 능력을 알아 봐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경험과 경력입니다. 한 우물을 파야 성공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분야에서 전망이 좋은 미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귀하는 '산사에 샘터나 계곡의 형상'으로 고적한 기운이 감돌고 성품의 결백함이 고립을 자초하기도하며 생일지(태어난 생일)에 금신(金神)을 내포하여 근기(根基)로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일이 풀리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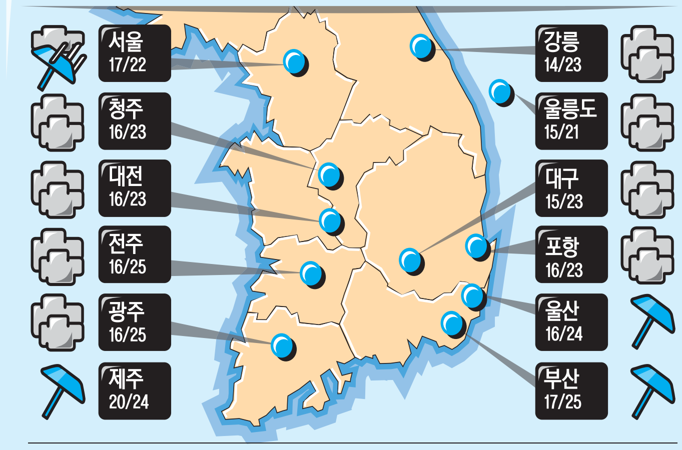
환경보건학과는 아직 생소하고 일자리 기회가 많지 않겠으나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부단한 노력이라고 봅니다. 사주로 계수(癸水)일간이 취업과 시험의 합격 운세가 흡족한 상태가 아니지만 2017년 지나면서 운세가 향상되며 현재 직장운세는 2015년에는 발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므로 더욱 열심히 일을 해서 신뢰를 쌓도록 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날씨

10/2 木 일출시각 06:28 월몰시각 18:1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면 호흡기 검사가 필요합니다. 폐암·결핵·기관지확장증 등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신속히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3	9			8		
5	4			7				
			5			7		4
	3						7	9
			1	4	9			
1	9						5	
3		9			2			
				3			2	7
		2			5	6		1

		3		4				
			2				9	
7		8	1		6			5
	6					1	4	
1		2	6		4	5		9
	5	4					2	
5			4		1	2		3
	8				3			
				7		9		

스도쿠 정답

6	7	3	9	2	4	8	1	5
5	4	1	6	7	8	2	9	3
9	2	8	5	1	3	7	6	4
8	3	4	2	5	6	1	7	9
2	5	7	1	4	9	3	8	6
1	9	6	3	8	7	4	5	2
3	1	9	7	6	2	5	4	8
4	6	5	8	3	1	9	2	7
7	8	2	4	9	5	6	3	1

6	9	3	5	4	7	8	1	2
4	1	5	2	3	8	6	9	7
7	2	8	1	9	6	4	3	5
9	6	7	3	2	5	1	4	8
1	3	2	6	8	4	5	7	9
8	5	4	7	1	9	3	2	6
5	7	9	4	6	1	2	8	3
2	8	1	9	5	3	7	6	4
3	4	6	8	7	2	9	5	1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신점[神占] 운세 10월 2일 (음 9월 9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쥐 — **48년생** 기회 왔을 때 기분전환 하라. **60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된다. **72년생** 하던 일 매듭짓고 딴생각을 할 것. **84년생** 방심하면 유인책에 걸려든다.

소 — **49년생** 앞장 서야 할 일이 생긴다. **61년생** 문서일은 당분간 서두르지 말라. **73년생** 조건이 같으면 근성에서 승부 갈린다. **85년생** 좋든 싫든 대세 따라야 편안~.

호랑이 — **50년생** 재물운이 길하니 기대하라. **62년생** 마음의 큰 유산을 물려받는다. **74년생** 가족에 새 희망이 생겨 즐겁구나. **86년생** 공들인 사람은 마음의 문 연다.

토끼 — **51년생** 쪼그라든 살림은 핀다. **63년생** 세상의 수군거림에 신경 쓰지 말라. **75년생** 길목이 막힌 길을 가야하는 형국이다. **87년생** 좋은 소식이 있으니 기대하라.

용 — **52년생** 배우자 따뜻한 배려에 휴~. **64년생** 설치는 아랫사람은 제동이 필요하다. **76년생** 심란한 마음엔 한잔이 약이 될 수도. **88년생** 가지가지 해봐야 새 길이 열린다.

뱀 — **53년생** 행동의 영역이 확장된다. **65년생** 뒷말을 듣더라도 소신을 지켜라. **77년생** 고난의 계절은 가고 웃음이 찾아온다. **89년생** 깊이 생각하고 움직여라.

말 — **42년생** 한 가지 일에만 주력할 것. **54년생** 좋은 일 끝에 나쁜 일도 생기는 법이다. **66년생** 명분 상실한 일은 포기할 것. **78년생** 직장인은 파워가 커질 경사 생긴다.

양 — **43년생** 때맞춰 투자한 결실이 풍성하다. **55년생** 분위기에 취해 오버하지 말라. **67년생** 공적인 일은 명확한 기술이 필요하다. **79년생** 손해 보더라도 반칙의 고리 끊어라.

원숭이 — **44년생**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늘려라. **56년생** 좋은 문서가 들어오니 잡아야 한다. **68년생** 시비 거는 사람은 무시할 것. **80년생** 청마가 초원을 누비는 격이다.

닭 — **45년생** 자녀가 웃음보따리 선물한다. **57년생** 힘에 부친다고 억지는 쓰지 말라. **69년생** 어려움에 처하나 귀인이 나타난다. **81년생** 위험한 일에 친구 끌어들이지 말라.

개 — **46년생** 까다로운 배우자 때문에 부글~. **58년생** 하고 싶은 소일거리가 생겨 즐겁다. **70년생** 남의 떡이 커 보이니 욕심 버려라. **82년생** 직장인은 성공의 아이콘이 된다.

돼지 — **47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된다. **59년생** 역마살이 동하니 움직여라. **71년생** 이름을 널리 알릴 경사가 생긴다. **83년생** 겉모습만 보고 상대방을 평가 말라.


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6년연속 소주부문
국가고객만족도 1위
처음
그 부드러운
느낌처럼
100%
처음처럼
부드러운 18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